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8월  
석사학위 논문

# 한·중 신어 조어법 대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 민

# 한·중 신어 조어법 대조 연구

A Contrastive study of Word Formation of  
Korean-Chinese New Words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 민

# 한·중 신어 조어법 대조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한 민

## 한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u>최 영 주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u>이 금 순 (인)</u>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u>강 희 숙 (인)</u>

2020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ABSTRACT .....	V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3
1.2.1. 한국어 신어 연구 .....	4
1.2.2. 중국어 신어 연구 .....	6
1.2.3.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대조 연구 .....	9
1.3. 연구 대상 및 방법 .....	11
2. 이론적 배경 .....	13
2.1. 신어의 개념 .....	13
2.2. 신어 생성의 원인 .....	17
3. 신어의 유형 .....	20
3.1. 어종별 신어 .....	20
3.2. 품사별 신어 .....	29
4. 한·중 신어 조어법 대조 분석 .....	32

4.1. 단일어 .....	32
4.1.1. 한국어 단일어 .....	33
4.1.2. 중국어 단일어 .....	35
4.1.3. 한·중 단일어 대조 .....	36
4.2. 파생어 .....	36
4.2.1. 한국어 파생어 .....	36
4.2.2. 중국어 파생어 .....	43
4.2.3. 한·중 파생어 대조 .....	51
4.3. 합성어 .....	52
4.3.1. 한국어 합성어 .....	53
4.3.2. 중국어 합성어 .....	55
4.3.3. 한·중 합성어 대조 .....	57
4.4. 혼성어 .....	57
4.4.1. 한국어 혼성어 .....	58
4.4.2. 중국어 혼성어 .....	59
4.4.3. 한·중 혼성어 대조 .....	60
4.5. 축약어 .....	60
4.5.1. 한국어 축약어 .....	61
4.5.2. 중국어 축약어 .....	63
4.5.3. 한·중 축약어 대조 .....	66
5. 결론 .....	67

<참고 문헌> ..... 70



## 〈표 목 차〉

〈표 1〉 선행 연구에서의 한국어 신어 유형화 .....	5
〈표 2〉 중국어 신어를 수록한 중국어 사전 목록 .....	7
〈표 3〉 선행 연구에서의 중국어 신어 유형화 .....	8
〈표 4〉 한국어 사전별 신어의 개념 .....	13
〈표 5〉 중국어 사전별 신어의 개념 .....	15
〈표 6〉 한국어 단일 어원 신어 .....	21
〈표 7〉 한국어 복합 어원 신어 .....	24
〈표 8〉 중국어 어종별 신어 .....	28
〈표 9〉 한국어 품사별 신어 .....	30
〈표 10〉 중국어 품사별 신어 .....	30
〈표 11〉 한국어 신어 형성 접미사 목록 .....	38
〈표 12〉 중국어 신어 형성 접두사 목록 .....	44
〈표 13〉 중국어 신어 형성 접미사 목록 .....	47
〈표 14〉 조어법에 따른 신어 대조 .....	68

#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f Word Formation of Korean-Chinese New Words

Han M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dvisor: Prof. Kang Hui-suk, Ph.D.

In the research, the new words in both Chinese and Korean are classified based on their categories and etymologies. The new words are comparatively analyzed based on word formation rules, which leads to find some differences existing between new words formation in Chinese and Korean.

Chapter 1 states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e study. The research direction and methods will be determined through the prior study on new words appearing in Chinese and Korean. Chapter 2 defines the new words in Chinese and Korean. The chapter provides the reason why the new words arise in the two languages. Chapter 3 classifies the new words in Chinese and Korean according to their etymology and part of speech and analyze their formation as a whole.

Chapter 4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in new words formation rules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data in Korean. Investigation Report of New Words in 2018 and Chinese Language Report for 2018. From the analysis a conclusion has been drawn that single words, derivative words and blend words have stronger power to come into being in Korean than in Chinese, while compound words and abbreviations are more frequently occurring in Chinese than in Korean.

Chapter 5 summarizes the whole thesis and briefly discusses on the shortcomings of the thesis.

# 1. 서론

##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사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회의 변화는 언어의 체계뿐 아니라 그 사용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신어(新語, neologism)는 한 사회, 즉 언어 공동체에 새로운 지시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언어적으로 지칭할 구성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신어는 시기에 따라, 언어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조어법을 통하여 생성된다는 점에서 한 사회 내에서의 언어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의 유형을 어종과 품사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조어법을 바탕으로 대조 분석함으로써 두 언어 간 신어의 조어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어는 변화하는 세상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조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신어에는 당대의 정치,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신어는 한 사회의 변화 양상이 어떠하였는가를 언어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현상 및 사물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기존의 표현만으로 지칭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신어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의 언어 표현과는 달리 유동적이며, 한 사회의 특징 및 변화 양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신어는 한 사회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는 언어 자료라 할 수 있다.

둘째, 신어를 통하여 한 사회의 문화적 양상을 살필 수 있다. 문화적인 양상은 사회, 정치, 경제, 생활 등 한 사회 내 구성원들의 생활양식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며, 신어는 그 사회의 문화적 트렌드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트

렌드는 현대에 주로 텍스트 및 영상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이르는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하여 생성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화적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어를 살펴볼 때, 그 사회에서 어떠한 것이 유행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셋째, 신어는 인간의 언어 사용이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신어의 생성 및 사용 전반과 관계되어 있다. 신어의 생성에서는 사람들이 제한된 조어법을 바탕으로 기존의 표현을 벗어난 새로운 표현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한편 신어의 사용에서는 그 양상에 따라 한 언어의 어휘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언어권에서 높은 사용 빈도를 지닌 신어는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착되면서 그 언어의 어휘 체계 안으로 편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어는 인간의 언어 사용 능력 및 양상에 따른 경향성뿐 아니라 공시적인 어휘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도 살필 수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신어 연구는 언어와 사회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가운데 신어의 언어 간 대조 연구 또한 언어뿐 아니라 각 언어권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 언어권에서 사용되는 신어를 이해하는 일은 그 언어권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교류를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이다.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에도 유입됨에 따라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는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에 유학을 오는 중국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sup>1)</sup>. 중국으로 유학을 오는 한국 학생의 경우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점<sup>2)</sup>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대조한 연구는 두 언어 사

1)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2019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160,165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17,960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은 71,067명(44.4%)으로,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68,537명, 2017년에는 68,1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2019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한국인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전체 한국인 유학생의 수는 213,000명으로, 이는 전년 대비 7,930명이 감소

이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두 나라에서 이루어진 신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어종 및 품사별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두 언어의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대조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신어를 만들어내는 경향은 어떠한지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 1.2. 선행 연구

현재까지 한국에서 이루어진 신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신어의 왕성한 생산은 세대 및 계층 간 의사소통의 문제, 정보 공유의 불평등 문제, 국가 지식 정보 체계 관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신어 조사 보고서》는 국가 주도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생성된 300~600여 개의 한국어 신어<sup>3)</sup>를 ‘품사’, ‘조어법’, ‘원어’, ‘전문영역’의 네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한편 중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부 산하에서 중국어의 언어생활 및 어문규범 전반을 관리하는 ‘언어문자신식관리사(言語文字信息管理司)’에서 발행하는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中國語言生活狀況報告)》가 있다. 이 자료는 중국어 언어 사회의 발달 양상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해마다 중국어 신어의 현황을 보고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위의 연구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는 각국 언어의 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신어 연구를 한국어 신어 연구, 중국어 신어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대조 연

---

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중국으로 유학을 떠난 한국 학생의 수는 50,600명(23.8%)으로, 2018년에는 63,827명, 2017년에는 73,240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2018년에는 중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2019년에는 미국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54,555명, 25.6%) 다음으로 많다.

3) 이 가운데 《2015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478개, 증가하였다. 《2016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625개, 《2017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373개,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434의 신어가 나타났다.

구의 세 범주로 나누어 검토하도록 하겠다.

### 1.2.1. 한국어 신어 연구

이 유형의 연구는 일정 기간에 생성된 한국어 신어를 조사하고 정리한 것과 한국어 신어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후자의 연구는 신어의 개념 및 특징을 살핀 것과 한국어 신어를 유형화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어 신어를 조사하고 정리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의 연구는 앞에서 설명한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 외에도 강신항(1991), 국립국어원(2007) 등이 있다. 강신항(1991)에서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45년 동안의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의 어휘를 조사함으로써 해당 시기에도 사회 변화에 따른 신어가 존재함을 밝혀내었다. 국립국어원(2007)은 국어자료총서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신어를 수집한 연구이다.

다음으로 한국어 신어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여기에서 한국어 신어의 개념 및 생성 기제를 밝힌 연구는 이희승(1933), 남기심(1983), 하치근(1988) 등이 있는 한편, 한국어 신어를 유형화한 연구는 김광해(1993), 임지룡(1997), 문금현(1999), 김희영(1999), 전명미(2005), 왕유·이병일(2018)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연구의 유형 가운데 한국어 신어의 개념 및 특징을 정의한 연구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이희승(1933)에서는 외래어 번역문에서 나타난 신어를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신어는 한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어휘로서의 기능을 지닌다고 하였다. 남기심(1983)에서 신어는 기존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그 구성방식은 통사적 복합어와 파생어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하치근(1988)에서는 신어의 어휘화 과정을 고려하여 어휘소를 설정하고, 목록화함으로써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조어론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 신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 연구 성과는 주로 조어법을 중심

으로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어종 및 생성 원인 등에 따라 분류한 것이 있다. 이 유형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 신어의 유형은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 1> 선행 연구에서의 한국어 신어 유형화**

관련 연구	분류 기준	세부 유형
김광해(1993)	조어법	합성, 파생, 유추, 혼성 및 축약
임지룡(1997)	조어법	합성, 혼성, 축약, 파생, 유추
김희영(1999)	구성 방식	기존어의 형태를 이용하는 방식, 기존어의 의미를 이용하는 방식, 기존어의 형태와 의미를 이용하는 방식, 기존어와 유연성이 없는 경우
문금현(1999)	생성 동기	자연발생적 동기, 인위적 동기
	생성 방식	체계적인 방식, 재활용의 방식, 산발적인 방식 <sup>4)</sup>
임지룡(2003)	조어법	합성, 혼성, 축약, 약어, 절단(clipping)
전명미(2005)	어종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조어법	형성, 파생, 혼성, 축약
왕유·이병일(2018)	조어법	단일어, 합성어, 혼성어, 축약어

<표 1>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다수의 연구가 한국어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어종이 분류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어법에서는 합성, 파생, 혼성, 축약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성과들 가운데 임지룡(1997, 2003)에 따르면 조어법 가운데 합성법에 따라 형성된 신어의 수가 가장 많으며, 합성법은 가장 생산적인 조어 방식에 해당한다.

김희영(1999), 문금현(1999)의 유형화는 다른 연구에서의 분류 방식과 차이

4) 문금현(1999: 302)에 따르면 ‘산발적’이라는 용어는 역사음운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산발적인 음운 변화’에서의 ‘sporadic’을 따른 것이라 하였다.

를 보이고 있다. 김희영(1999)에서는 구성 방식에 따라 한국어 신어를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기존어의 형태를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일반적인 조어법에 따른 분류와 유사한 ‘합성, 파생, 섞임(blending), 축약, 틀 따오기<sup>5)</sup>’로 분류하였다. ‘기존어의 의미를 이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어휘가 지니던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를 뜻하며, ‘기존어의 형태와 의미를 모두 이용하는 방식’은 조어법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표현이 의미 확장을 겪은 형태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어와 유연성이 없는 경우’는 다른 말로 차용(borrowing)의 방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문금현(1999)에서는 신어를 생성 동기와 생성 방식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중 생성 동기는 언어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과 의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누었다. 전자는 새로운 지시 대상이 출현하였을 때, 이를 명명할 필요에 따라 외국에서의 명칭을 차용하거나 새로 만든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유희를 목적으로 신선한 표현을 원하는 언중의 표현 욕구에 따른 경우도 있다. 후자는 국어 순화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순화어, 또는 광고나 특정 상품명이 신어로 정착하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위 연구에서 생성 방식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방식, 재활용의 방식, 산발적인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체계적인 방식은 ‘파생, 합성’ 외에도 ‘축약’, 김희영(1999)에서 제시한 ‘틀 따오기’와 유사한 개념을 포함한 ‘변형’, ‘짜가’와 같이 기존의 형태를 역전함으로써 유희적 효과를 지니는 ‘역전’이 있다. 재활용의 방식은 기존의 표현 의미 확장이 이루어진 ‘다의적 재활용’과 기존의 표현이 품사를 달리하여 쓰이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산발적인 방식은 기존 형태소에 의존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져 쓰이는 단어로, 문자 그대로 산발적이기 때문에 체계화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1.2.2. 중국어 신어 연구

---

5) 김희영(1999: 59~60)에 따르면 ‘틀 따오기’는 기존의 표현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유지하면서 일부를 바꾸는 유형으로, 예컨대 ‘팔찌’에서 ‘찌’ 부분을 유지하고 ‘발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신어 연구 또한 앞에 항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게 신어를 수집하고 정리한 것, 신어를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신어 조사 연구는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에서 발행하는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 외에도 다양한 중국어 사전에서 신어를 수록함으로써 개별 중국어 신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중국어 신어를 수록한 중국어 사전 목록**

발행 연도	사전명	발행처
1993	《신사신어사전(新詞新語詞典)》	어문출판사(語文出版社)
2003	《신화신어사전(新華新詞語詞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2005	《현대한어사전(現代漢語詞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2005	《현대한어신어사전(現代漢語新詞語詞典)》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
2006	《신세기한어신어사전(新世紀漢語新詞語詞典)》	한어대사전출판사 (漢語大詞典出版社)
2019	《신어대사전(新詞語大辭典)》	상해사서출판사 (上海辭書出版社)

<표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는 ‘신어(新語)’ 외에도 ‘신사(新詞)’ 또는 ‘신어(新詞語)’라는 신어가 여러 중국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사전에서는 개별 중국어 신어의 의미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사전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2019년 상해사서출판사에서 발행된 《신어대사전》(2019)로, 이 사전에서는 1978년부터 2018년까지 만들어진 20,000여 개의 중국어 신어를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1년 단위로 발행되는 한국의 《신어 조사 보고서》와는 달리 사전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사전에만 의존하여 신어를 연구하기에는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sup>6)</sup>.

6) 상해사서출판사에서 간행된 《신어대사전》(2018)은 개정 전 판본의 발행 연도가 2003년으로, 개정되기까지 약 15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중국어 신어를 이론적으로 논의한 초기의 연구 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王忠賢 교수의 《상해속어도설(上海俗語圖說)》(1935)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중국 상해 지역에서 유행하는 속어 문장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삽화를 통하여 당시 상해의 풍토는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呂叔湘(1984), 游玉祥(2012), 蘇琳(2018) 등은 신어의 개념 및 출현 원인에서 개별 신어의 의미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呂叔湘(1984)에서는 직접 수집한 170개의 신어를 분석하고, 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游玉祥(2012)에서는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제시된 신어를 바탕으로 신어의 개념 및 특징과 개별 신어의 조어법은 어떠한가를 논의하였다. 蘇琳(2018)에서는 신어의 특징을 기존의 언어 규칙을 특정한 관계에 맞추어 재결합하는 것이고, 기존의 언어 규칙을 벗어나는 것이며,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신어는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중국어 신어를 유형에 따라 체계화한 연구는 구상권(2012), 高琳娜(2015), 蘇琳(2018), 吳婭(2019)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 제시한 신어의 유형은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선행 연구에서의 중국어 신어 유형화**

관련 연구	분류 기준	세부 유형
구상권(2012)	조어법	모방법, 축약법, 음역법
高琳娜(2015)	조어법	축합조어, 유추조어, 차용조어, 수사조어, 음성조어, 설명조어
馬怡璇(2018)	조어법	설명법, 수사법, 인용법, 쌍음법, 축약법, 모성법
吳婭(2019)	조어법	단일어, 합성어

<표 3>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네 연구 모두 조어법을 중심으로 중국어 신어를 유형화하였으나, 연구에 따라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吳婭(2019)에서 단일어는 41개로 전체 단어의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합성어는 399개로 전체 단어의 90.68%로 압도적인 비율이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국어에서도 신어의 조어법 가운데 합성법이 가장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高琳娜(2015)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생성된 중국어 신어와 1991에서 1994년까지 만들어진 것과 대조한 결과, 과거에 2음절 신어보다 3음절 신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중국어의 단어가 모두 1음절이라는 언어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3.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대조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대조 연구는 개별 언어의 신어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신어의 생산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해당 연구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는 고혜(1999), 顏艷(2008), 서사명(2009), 이가익(2016), 류해도(2017), 여익현(2017), 진혜욱(2017), 이비(2019) 등이 있다.

고혜(1999)에서는 신어의 개념 정의와 함께 중국어 신어의 발달과 조어법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나, 한국어 신어는 중국어 신어와의 비교를 위하여 간단한 수준으로 언급하는 데에만 그쳤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顏艷(2008)는 2001년부터 2006까지 생성된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품사, 어종, 영역에 따라 각 언어 신어의 형태적, 의미적 형성 특징 및 언어별 신어 사용상에 따른 특징으로 분류함으로써 두 언어 신어의 형성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유형과 조어 차이 및 언어별 신어 사용 경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사명(2009)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신어 자료를 분야에 따라 ‘사회문화 분야’, ‘정치경제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신어의 형태적, 의미적 특징을 대조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적 차원에서 새로운 언어 조합, 언어의 차용, 기본 단어 의미의 부가 등의 특징을 보였으며, 중국어 신어의 경우 한국어 신어의 형태적 특징 외에 지역 방언에 따른 특징

이 부가적으로 나타났다. 이가익(2016)에서는 두 언어 신어의 형식 및 생성 방식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었으며, 의미적 형성 방법에 따라 두 언어 신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조하였다.

류해도(2017)에서는 2015년에 나타난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단일어’, ‘합성어’, ‘혼성어’, ‘축약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여익현(2017)은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의 형성 기제에 따라 ‘생성’, ‘유추’, ‘차용’, ‘축소’, ‘확대’, ‘이의(異義)’로 분류하였으며, 그 외에 조어적인 특징과 관련하여 ‘합성’, ‘파생’, ‘통사론적 단어화’, ‘혼성’, ‘절단’, ‘기타’로 분류하였다.

진혜육(2017)은 2014년에 생성된 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형성 양상을 형태론과 의미론의 관점에서 대조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언어 신어를 형태론적 관점에서 ‘파생어’, ‘합성어’로, 합성어 유형에서는 합성 방식에 따라 ‘압축’, ‘유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의미론적 관점에서는 기존 단어의 의미변화와 새롭게 나타난 의미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사적 방식에 따라 ‘비유’, ‘과장’, ‘의인’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비(2019)에서는 형태론과 어휘론적 생성 방식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대조하였다. 형태론적 방식에서는 ‘합성’, ‘파생’, ‘혼성’, ‘축약’으로, 어휘론적 방식에서는 ‘의미의 부가’와 ‘외래어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어 연구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국어 신어 연구, 중국어 신어 연구,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대조 연구 모두 국가 차원에서 신어를 수집한 연구와 신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부터 각 언어의 신어 자료를 바탕으로 이를 유형화하고자 한 연구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후자의 연구는 주로 신어의 유형화에 대한 연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유형의 연구에서는 주로 조어법 중심의 분류가 많았으며, 그 외에도 어종이나 구성 및 생성 방식에 따라 분류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조어법을 기준으로 분석한 연구라도 한국어와 중국어의 언어적 특성 및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인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어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된 분류 기준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대조 분석하도록 하

겠다.

### 1.3.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각 언어에 따른 신어의 조어상 특징은 어떠한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발행된 신어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신어 자료는 각각 국립국어원의 《신어 조사 보고서》와 중국 교육부 산하 기관인 언어문자신식관리사의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이다.

위의 두 자료 모두 신어의 과도한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어휘 자원을 풍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두 나라의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진 신어 조사 사업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두 자료 간에는 신어를 분류하는 기준에 따른 차이점이 있다. 한국의 《신어 조사 보고서》는 ‘품사’, ‘조어법’, ‘원어’, ‘사용 분야’에 따른 유형, 사용 빈도에 따라 신어를 분류하였으며, 과거에 조사한 신어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해마다 신어의 사용 추이를 분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달리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는 중국어 신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분류 기준 없이 단순히 수집된 신어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사용 추이에 대한 분석 또한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의 중국어 신어를 수집한 자료는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 외에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출간된 한국의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와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나타난 단어 단위의 신어를 바탕으로 각 언어의 조어 양상은 어떠한가를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해에 생성된 신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단어 단위의 신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의 범위가 그리 넓지 못하다는 문

7)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총 434개의 한국어 신어를 수집하였으며, 그중 구(句)형 신어는 212개, 단어형 신어는 222개이다.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서는 총 320개 중국어 신어가 수집되었는데, 이들 신어는 모두 단어형 신어에 해당한다.

제가 있다. 그러나 시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최근의 신어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과 형태론적 조어법에 따른 체계적인 유형화를 위하여 2018년에 생성된 단어형 신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 및 두 언어 간 대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설정한다. 그다음 본 연구의 대상 및 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사전과 두 나라의 신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신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유사한 개념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신어의 특징을 고찰한다. 또한 신어의 생성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신어의 유형에 따라 어종별, 품사별을 분류하고 신어의 유형화에 따라 신어를 전체적인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2019년에 출간된 《2018년 신어 조사 보고서》와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서 제시된 두 언어의 신어를 조어법에 따라 분류한 뒤 각 유형에 따른 특징을 예를 들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별로 신어의 조어 경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 전개된 논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다음 앞으로의 과제를 밝힌다.

## 2. 이론적 배경

신어는 문자 그대로 ‘새로운 말’을 뜻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시 대상을 부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뜻하지만, 기존의 표현이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전적 정의와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신어의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겠다. 그다음 신어와 혼동할 수 있는 개념인 ‘유행어’의 개념을 고찰한 뒤 이들 개념과 신어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신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신어를 품사 및 어종에 따라 유형화하도록 하겠다.

### 2.1. 신어의 개념

신어(新語, neologism)는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새로운 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정(1995: 144)에서는 “신어는 새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한 모든 단어, 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는 단어의 전혀 새로운 뜻을 가리킨다”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신어는 새로 만들어진 말 외에도 차용어, 기존에 있던 표현들이 어떠한 기체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신어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한국어 사전별 신어의 개념

사전명	개념
《언어학사전》 (1987)	신어: 새로운 단어, 또는 존재하고 있던 단어이지만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을 경우, 그 외에도 외국어 또는 전문 분야, 특수한 사회 집단의 용어로부터의 차용어, 그리고

	과거의 사용된 었다가 소멸된 뒤 다시 새로이 쓰이기 시작한 단어 등이 포함 된다.
《우리말 큰사전》 (1992)	새말: 새로 생기거나 지은 말; 새로 들어온 말. ≡(한)신어
《국어학사전》 (1995)	새말: 단어 조성적 말줄기(어간)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어. 일반적으로 ‘새말’에는 외래어까지도 포함하여 새로 나오는 말을 칭하는 뜻으로 쓰인다.
《표준국어대사전》 (1999)	신어: 새로 새긴 말, 또는 새로 귀화한 외래어. ≡새말·신조어.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어는 ‘새말’, ‘신조어(新造語)’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에서 ‘새말’은 고유어 명칭이고, ‘신조어’는 신어를 달리 이르는 한 자어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신어와 다름없이 쓰이는 말에 해당한다. 신어를 지칭하는 말이 서로 동의어와 다름없이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전마다 제시하는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표 4>에 제시된 모든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신어는 새로 만들어진 말을 뜻하며, 여기에 새로운 외래어를 신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어학사전》에서는 ‘단어를 조성하는 어간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말’이라는 점에서, 신어가 합성법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협의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또한 《언어학사전》에서는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기존의 단어와 전문 분야나 특수한 사회 집단의 용어에서 차용한 말까지를 신어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어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신어를 다룬 연구에서도 신어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나,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 남기심(1983): 신어는 이미 있었거나,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는 말이며, 다른 국가 언어로부터 차용되는 외래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 나. 김광해(1993): 새로운 개념이 나타날 때 이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다.
- 다. 이은정(1995): 새로운 말이 만들어졌거나, 또는 다른 언어로부터 차용한 모든 단어, 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는 단어의 전혀 새로운 뜻을 가리킨다.
- 르. 문금현(1999): 신어는 새롭게 창조된 말이다.

다음으로 중국어 사전과 중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논의에서는 신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국에서는 신어를 ‘신사어(新詞語)’, ‘신사(新詞)’, ‘신어(新語)’, ‘신조어(新造詞)’로 부른다. 중국어 사전에서 제시하는 신어의 개념은 아래 <표 5>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 중국어 사전별 신어의 개념**

사전명	개념	번역
《언어학백과사전(語言學百科詞典)》(1993)	爲了表現新事物或新的概念的新詞語。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다기능현대한어사전(多功能現代漢語詞典)》(1996)	伴隨新事物的產生而產生的新詞語。	새로운 사물의 출현으로 나타난 새로운 단어이다.
《현대한어대사전(現代漢語大詞典)》(2010)	隨著新事物新思想的產生而產生的新詞語。	새로운 사물이나 사상의 출현으로 나타난 새로운 단어이다.

<표 5>에서 제시된 정의는 모두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 또는 사상을 부르

기 위해 만들어진 단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한 정의와는 달리 신어의 범위는 어떠한가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에 대하여 신어의 범주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ㄱ. 王鐵昆(1991): 新詞語是指一個新創造得或從其他語言中新借用過來的詞語, 也指一個產生了新語義的固有詞語。(신어는 새롭게 창조되었거나, 다른 언어에서 새롭게 차용된 단어를 가리키며, 새로운 의미가 생긴 고유한 단어를 가리킨다.)
- ㄴ. 常志斌(2001): 所謂新詞語, 是指在某個語言學社會里, 在某個特定歷史時期內, 作為一種語言的現實存在而被大眾社會公認的新出現的詞語, 獲得新意義及復活的詞語。(신어는 한 언어 공동체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인정받는 새롭게 등장한 단어 또는 새로운 의미를 얻음으로써 다시 쓰이는 단어이다.)
- ㄷ. 何 苗(2002): 新詞語是指爲了反映新事物、新概念、新思維等而出現在口語或者書面語中, 表意明確、利於交往的詞語。(신어란 새로운 사물, 새로운 개념, 새로운 사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어나 문어에서 나타난 의미의 정확성과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2)에서 제시된 기존의 논의 또한 한국에서의 정의와 같이 새로운 지시 대상을 부르기 위한 단어라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2ㄱ)에서는 외국어에서 차용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어의 일반적인 정의와 부합한다. (2ㄴ)은 ‘사회에서 새롭게 인정받는 단어’라는 점에서 신어가 단어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의에 해당한다. 한편 (2ㄷ)은 신어는 구어와 문어 모두에 나타나며, 의미의 정확성과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내는 어휘라는 점에서 신어의 사회적 기능에 따른 정의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행어의 개념은 어떠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신어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국립국어원에서 간행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2011: 16)에 따르면 유행어는 언중들이 일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로, 어느 한 순간에 갑자기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일상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인 제한점을 지닌다고 하였다. 또한 백동선(2006: 236)에서는 유행어는 생성 시기와는 관계없이 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말을 이른다라고 정의한 바에 비추어 보면 신어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어는 그 말이 생겼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얼마만큼 유행할 것인 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백동선, 2006: 236). 이에 따르면 신어는 그 표현이 새로 만들어진 순간 바로 유행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어가 유행어가 되면서 일상어로 정착하였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유행어의 개념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미 유행어의 범주를 벗어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행어는 부분적으로 신어의 범주 안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모든 유행어가 신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신어는 한 사회 내에서 새로운 지시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말을 뜻한다. 신어의 범주는 앞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외국어나 전문 집단 또는 특수 집단에서 쓰이는 용어의 차용어, 기존의 표현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 과거에 사라졌다가 최근에 다시 쓰이기 시작한 표현까지를 이른다. 또한 신어가 단어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언어 공동체의 합의가 전제되며, 의미의 명확성과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신어의 개념 가운데 ‘새롭게 생겨난 말’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바, 그 말이 얼마나 유행하는 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유행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닌다.

## 2.2. 신어 생성의 요인

신어는 언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는바,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객관적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폭과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신어의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으며, 신어는 그 사회의 모습을 전면적이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신어 생성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요인이다. 王力(1980: 525)에 따르면, 사회는 언어로 하여금 생활 속에 필요한 새로운 표현으로 어휘를 보충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신어 생성의 사회적인 요인은 경제, 정치, 환경 문제뿐 아니라 문화 간 접촉 등 여러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다음은 사회적인 요인에 따라 만들어진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 (3) ㄱ. 마가노믹스(MAGAnomics): Make America Great Again+economics
  - ㄴ. 범튀르크주의: 범(汎)-+튀르크+주의
- (4) ㄱ. 進博會: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中國國際進口博覽會)
  - ㄴ. 政治站位: 政治(정치)+站位(위치)
  - ㄷ. 山竹(산죽)

예시 (3ㄱ)와 (4ㄱ)은 경제에 관한 신어이다. (3ㄱ)은 현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의 두문자어(acronym)인 ‘마가(MAGA)’와 ‘경제’를 뜻하는 ‘economics’의 혼성어(blends)이다. (4ㄱ)에서는 ‘국제 수입 박람회’를 뜻하는 중국어 단어가 축약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예시 (3ㄴ)와 (4ㄴ)은 정치에 관한 신어이다. (3ㄴ)은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접두사 ‘범-’과 ‘튀르크’, ‘주의’가 파생과 합성을 겪어 만들어진 것이다<sup>8)</sup>. 한편 (4ㄴ)은 정치적 입장을 뜻하는 중국어 신어로, 정치를 뜻하는 ‘政治’와 입장을 뜻하는 ‘站位’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4ㄷ)은 자연재해를 나타내는 중국어 신어로, 기존에는 산대나무를 뜻하던 것이 2018년

8) 중앙아시아, 넓게는 아시아 전체를 아울러 같은 튀르크 민족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 사상이다.

의 22번 태풍의 이름으로 명명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사례이다.

둘째, 언어적 요인이다. 김미성(2004)에서는 사회가 계속 발전해가면서 언어의 내포적 의미도 확대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어에서는 단음절어는 정해진 의미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력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2개 이상의 단음절어가 결합할 때에는 기본 단음절어의 의미 외에 새로운 의미가 더해지면서 기존에 없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표현력이 증가한다. 이와 같이 단순하면서도 여러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언중의 욕구에 따라 신어가 끊임없이 출현하는 현상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심리적 요인이다. 이는 언어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신어는 새로운 지시 대상을 가리킬 뿐 아니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표현으로 유희적인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이는 언중들이 어떤 것이든 새롭고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어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신어는 언중의 언어 사용 심리 및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예라는 점에서 귀중한 언어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3. 신어의 유형

신어의 유형은 어종, 품사, 조어법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의 기준으로는 분야에 따른 것이 있다. 그러나 현대에는 전문 분야나 직업이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 분야의 경우 사회 발달에 따라 인터넷 문화와 같은 다양한 문화 요소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전술한 바에 따라 분야를 바탕으로 신어를 유형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어종, 품사, 조어법을 중심으로 유형화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유형화 기준 가운데 어종과 품사를 중심으로 두 나라 언어의 신어를 분류하고, 조어법의 경우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 3.1. 어종별 신어

한국어 신어는 어종에 따라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자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외래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외래어는 주로 영어에서 차용한 단어가 대부분이나,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어원으로 하는 것도 있다.

위와 같은 어종별 유형은 다시 어원에 따라 ‘단일 어원’과 ‘복합 어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단일 어원은 하나의 어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단어 또는 공통된 어원을 지닌 단어끼리 결합한 것을 뜻한다. 한편 복합 어원은 여러 어원을 지닌 단어가 결합된 형태를 이른다. 다음 <표 6>는 2018년 한국어 단일 어원 신어를 정리한 것이다.

<표 6> 한국어 단일 어원 신어

어종	단어
고유어	뽀시래기, 흑우, 네주얼 등
한자어	땡반, 삼불일한, 토사호팽, 가심비, 가심비죽, 갑대출, 고독방, 궁예력, 급여체, 무세권, 백골선, 변포자, 부포죽, 살충란, 상사병, 시상사, 양땀, 연포자, 염진죽, 월화요병, 입퇴양난, 직세권, 퇴준생, 편가족, 편세권, 평부심. 폭탄기원, 취소가치, 소확성, 수부지, 건강무시증후군, 자아신경증, 공공기관채용부정근절법, 국제여성헌법, 반반차휴가제,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청년참여예산제, 판문점선언, 한반도운전석론, 화재적운, 조공계, 청마용성 등
외래어	마가노믹스, 크로스테크, 토크노믹스, 고프코어, 디즈니피케이션, 디플로테인먼트, 베그팩커, 베넥소더스, 솔로가미, 슬로컬리제이션, 아마존드, 언택트, 에스시에스피, 영즈하이머, 우먼스플레인, 주비퀴티, 지아르더블유엠, 케요네즈크립토재킹, 클로프닝, 탈룰라, 테크래시, 티엠티, 플레이케이션, 핀돔, 핀덱 핏스피레이션, 갓튜버, 걸페미, 굿빈, 멘즈테리어, 미닝아웃, 미드그론, 미투플레인, 박풀, 베드케이션, 북스타그래머, 비주얼버스터, 씨톡스, 액티비케이션, 엔잡러, 캘리차이나, 클램포러리, 키더런트, 키지트, 톤그로, 페이스틱, 펠트니스, 펫셔리, 푸스팩, 플레이팅그램, 픽스턴, 호텔플렉스, 힙트로, 카페케이션, 코리아노, 라플리에, 아베그지트, 아벡시트, 라테테크, 사토시사이클 등

<표 6>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18년에 생성된 한국어 단일 어원 신어 가운데 외래어와 한자어의 비중이 압도적인 반면, 고유어는 가장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유어에 속하는 신어 가운데 《신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흑우’와 ‘네주얼’을 고유어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흑우’는 ‘호구(虎口)’의 발음에 따라 표기가 변형된 형태이다. 한편 ‘네주얼’은 ‘비주얼(visual)’의 ‘비’와 ‘네’가 표기형이 유사한 데에서 생긴 신어로, 본래는 외래어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각 어원에 따른 신어는 같은 어종의 말끼리 결합되기도 한다. 이 가운

데 외래어는 두 개 이상의 언어에서 차용된 것들이 결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양상과는 차이가 있다. 먼저 단일어 고유어에 대한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 (5) ㄱ. 고유어: 흑우, 뽀시래기 등
- ㄴ. 고유어+고유어: 혼말, 소매넣기 등
- ㄷ. 고유어+고유어+고유어: 좋못사 등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유어 신어는 단일어에서 최대 3개의 고유어 단어가 결합한 형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ㄱ)은 고유어 하나만으로 된 단어의 예이다. (5ㄴ)은 두 개의 고유어 단어가 결합한 단어의 예이다. ‘소매넣기’는 ‘소매치기’의 반대말로, 주로 게임에서 숙련자가 초보자에게 물품이나 재화를 지원해 주는 일을 뜻한다. ‘혼말’은 ‘혼잣말’의 준말로, 이러한 축약의 양상은 (5ㄷ)에서도 나타난다. ‘ 좋못사’는 ‘좋다 못해 사랑하다’가 줄어든 단어로, 각 어절의 첫 음절을 중심으로 한 축약어에 해당한다.

한자어 또한 고유어와 같이 하나의 한자어로 구성된 단어와 여러 한자어가 결합하여 생겨난 신어가 있다. 다음은 한국어 한자어 신어의 구성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 (6) ㄱ. 한자어: 삼불일한(三不—限), 토사호팽(兔死虎烹)
- ㄴ. 한자어+한자어: 직세권(職勢圈), 염전족(鹽田族)
- ㄷ. 한자어+한자어+한자어: 소확성(小確成), 수부지(水不脂)
- ㄹ. 한자어+한자어+한자어+한자어: 청마용성(淸麻龍城)

(6)에서는 (5)과 달리 최대 4개의 한자어가 결합한 형태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6ㄱ)을 살펴보자면 ‘삼불일한’은 사드(THAAD)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합의사항을 가리킨다. ‘토사호팽’은 ‘토사구팽(兔死狗烹)’에서 온 말로, 2018년에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수호랑’의 지위가 행사가 끝난 후 약해지는 것을 가리킨다.



(6ㄴ)은 모두 두 개의 한자어가 결합한 신어의 예로, ‘직세권’은 직장이 인접해 있어 가까운 거리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주거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염전족’은 생활을 통해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돈을 아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짜다’가 인색함을 속되게 이른다는 연상을 통하여 생겨났다. (6ㄷ)에서 ‘소확성’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공’이, ‘수부지’는 ‘수분 부족형 지성피부’가 줄어든 말로, 모두 줄어든 부분이 한자어에 해당한다. (6ㄹ)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서울 강북의 청량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첫 음절이 줄어든 형태로, 세 개 이상의 한자어가 결합할 때에는 축약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어 기반 신어는 고유어와 한자어와는 달리 다른 언어권에서 차용한 형태끼리도 결합할 수 있다. 2018년 신어 자료에서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의 예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 (7) ㄱ. 영어+영어: 미드그론, 북스타그래머
- ㄴ. 영어+영어+영어: 올인빌, 스라벨
- ㄷ. 스페인어: 케렌시아
- ㄹ. 영어+이탈리아어: 코리아노
- ㅁ. 프랑스어+영어: 카페케이션
- ㅂ. 프랑스어+프랑스어: 카강스
- ㅅ. 일본어+영어: 아베그지트
- ㅇ. 일본어+프랑스어: 라플리에

(7)에 제시된 예는 대부분 영어를 중심으로 한 형태가 많다. (7ㄱ, ㄴ)은 영어 외래어끼리 결합한 단어로, ‘미드그론(midgrown)’은 고도 600미터부터 1200미터까지의 차밭에서 재배된 홍차를 뜻한다. ‘북스타그래머’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이라는 SNS에서 자신이 좋아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만한 책을 공유하는 이용자를 뜻한다. ‘스라벨’은 공부와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Work Life Balance)’에서 파생되었다. ‘올인빌’은 동네에서 기초생활 및 문화생활 전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뜻하며, ‘all in village’가 줄어든 말이다. (7ㄷ)의 ‘케렌시아’는 스페인어에서 차용된

단일어에 해당하는바, 혼자서 설 수 있는 공간을 뜻한다.

(7ㄹ~ㄴ)은 영어와 다른 언어에서 차용한 외래어와 결합한 단어의 예이다. ‘코리아노’는 카페에 오래 머물기 위해 아메리카노에 물을 섞은 것을 말한다. ‘카페케이션’과 ‘카캉스’는 카페에서 즐기는 휴식이라는 뜻으로, 각각 프랑스어에 영어와 프랑스어가 결합한 단어이다. ‘아베그지트’는 일본어와 영어가 결합한 말로,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뜻한다. (7ㅇ)에서는 일본어와 프랑스어 외래어가 결합한 말인 ‘라믈리에’가 제시되어 있다. 이 단어는 라면 소믈리에(sommelier)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는바, 조리된 인스턴트 라면을 보거나 맛보는 것만으로도 그 라면의 상표와 제품명을 알아맞히는 사람을 이른다.

다음으로 복합 어원 신어는 서로 다른 어원을 지닌 단어가 결합한 것을 이른다. 이에 대한 예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한국어 복합 어원 신어**

어종	단어
고유어+한자어	견본꾼, 고집살, 동리단길, 리자님, 머박, 송리단길, 여행잘알, 필덕, 갑분띠, 갑분싸, 값성비, 나성비, 나심비, 씹존주의, 서인부대, 골로족, 넵병, 땡땡미, 떡상, 설거지옥, 팡탈, 네다칭, 이맛현, 운알못, 탈잘싸, 회알못, 시송하다, 청개구리증세.
고유어+외래어	김치프리미엄, 얼굴라테, 각시탈리즘, 나일리지, 네주얼, 도민댄, 똥겜, 뜯플 막페인, 빠미니스트, 빠미니즘, 뽕디엠, 서버리아, 손캠, 홀로, 리또속, 에바참치퐁치, 립덕, 멘짚, 에바참치, 치빵, 코노, 코린이, 큐티뽀짝, 클알못, 키크라니톤광질광, 와알못, 퀘또속, 혼코노, 렐루, 인스타워시하다.
한자어+외래어	니트비용, 딥테크기업, 빈집스타일, 은행패싱, 코인경제, 토큰경제학, 포터리반규칙, 홈어라운드소비, 플라세보소비, 핀셋인상, 범튀르크주의, 신냉전벨트, 자구벽기반, 자기메모리, 특마고, 스모그제거탑, 건과라치, 가성비템, 가족테이너, 공병템, 과시템, 관트리피케이션, 국가픽, 국영수코, 남페미, 면제로이드, 만다보스맨, 법블레스유, 생빈, 자충수팩 잡학피디아, 험햇 게이트권, 골세권, 런예인, 맘조어, 무브병, 비주얼각, 비트페인, 셀럽병,

	엔지족, 워라밸족, 이모티콘족, 책카족, 카페인족, 귀어학, 키링남, 펌핑방, 푸스펙족, 주경야디, 문센족, 뷰세권, 을세권, 펫미족, 펫부심, 하캉스.
고유어+한자어 +외래어	역김치프리미엄, 플랜다스의계, 읍알단, 집캉스족, 혼케족, 혼행러, 홀로족.

<표 7>에 따르면 한국어 복합 어원 신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중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어원을 지닌 단어가 결합한 ‘고유어+한자어’형, ‘고유어+외래어’형, ‘한자어+외래어’형과 세 어원의 단어가 모두 결합한 ‘고유어+한자어+외래어’형이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유형은 결합 순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세분된다. 이 가운데 ‘고유어+한자어’형에 대한 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8) ㄱ. 고유어+한자어: 땡땡미
- ㄴ. 고유어+한자어+고유어: 갑분띠, 갑분싸
  - ㄷ. 고유어+한자어+한자어+한자어: 서인부대
  - ㄹ. 고유어+고유어+한자어: 네다청, 이맛현
  - ㅁ. 한자어+고유어: 여행잘알
  - ㅂ. 한자어+고유어+고유어: 탈잘싸, 회알못

(8ㄱ, ㄴ)은 하나의 고유어 단어와 한자어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결합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땡땡미’는 강아지 같은 귀여운 매력을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단어는 강아지를 뜻하는 ‘멍멍’과 표기가 유사한 데에서 생겨난 ‘땡땡’과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가 결합되었다. ‘여행잘알’은 ‘여행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줄어든 말이며, ‘여행(旅行)’와 고유어 ‘잘 알다’의 준말이 결합한 형태이다.

(8ㄴ~ㄹ)은 고유어 다음에 한자어 또는 고유어가 연달아 결합한 형태의 예이다. ‘갑분띠’와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띄우기/싸해짐’의 뜻을 지닌다. 이 단어는 ‘갑자기’와 ‘분위기(雰圍氣)’, ‘띄우기/싸해짐’이 결합되어 줄어들었

다는 점에서 ‘고유어+한자어+고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8ㄷ)의 ‘서인부대’는 인천광역시에서 인천의 부상으로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임을 홍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즉 서울, 인천, 부산, 대구가 줄어든 말이다. (8ㄹ)의 ‘네다청’은 ‘네, 다음 청소년’의 준말로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의 말 또는 타인을 청소년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여 무시할 때에 사용한다. ‘이맛현’은 게임에서 현금 결제를 통해 좋은 성과를 맛보았을 때, ‘이 맛에 현실합니다’라는 말이 축약된 것이다.

(8ㄴ)은 위와 반대로 한자어 다음에 고유어가 결합한 것으로, ‘탈잘싸’와 ‘회알못’ 등이 있다. 이들 단어는 ‘탈잘싸’는 ‘탈락했지만 잘 싸웠음’을 줄여서 형성된다. ‘회알못’은 ‘회사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탈잘싸’는 ‘탈락했지만 잘 싸웠다’가 줄어든 신어이다.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복합 어원 신어는 결합 순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9) ㄱ. 고유어+외래어: 뽕디엠, 똥겜
- ㄴ. 외래어+고유어: 큐티뽕짹
- ㄷ. 외래어+고유어+고유어: 리또속, 에바참치퐁치

(9ㄱ, ㄴ)은 ‘고유어+외래어’형의 가장 기본적인 결합 방식으로, ‘뽕디엠’은 트로트의 속칭인 ‘뽕짹’과 전자 댄스 음악(Electronic Dance Music)의 두문자어인 ‘EDM’이 결합한 말이다. ‘똥겜’은 똥 같은 게임, 즉 게임의 질이나 운영 상태가 나쁜 것을 뜻한다. ‘큐티뽕짹’은 한국어의 귀염둥이에 대응되는 영어 차용어 ‘큐티(cutie)’와 어감에 따라 귀여운 느낌을 나타내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고유어 ‘뽕짹’의 합성어이다.

(9ㄷ)에서 ‘리또속’은 가상 화폐 거래에서 ‘리플9)에 또 속았다’라는 뜻으로, 댓글에 나타난 허위정보를 믿었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았음을 뜻한다. ‘에바참치퐁치’는 어떠한 일의 정도가 지나침을 과장하여 이르는 뜻이다. 이 단어는 소위 청소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위 ‘급식체’에 해당하는 말로, 지나

---

9) ‘리플’은 댓글을 뜻하는 ‘reply’가 한국어 차용된 후 절단된 형태이다.

침을 뜻하는 외래어 ‘오버(over)’의 발음을 변형한 ‘에바’에 ‘참치’와 ‘꽂치’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한편 한자어와 외래어의 결합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결합 순서상 한자어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시된 예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 (10) ㄱ. 한자어+외래어: 과시템, 험핫
- ㄴ. 한자어+외래어+한자어: 문센족
- ㄷ. 외래어+한자어: 맘조어, 무브병

(10ㄱ)의 ‘과시템’은 남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산 물건을 가리키며, ‘과시(誇示)’와 ‘아이템(item)’의 절단형 ‘템’이 결합한 형태이다. ‘험핫’은 ‘험(嫌)’에 ‘핫플레이스(hot place)’가 붙어 줄어든 단어이다. 이 단어는 인기가 너무 많아 사람이 몰리는 곳을 기피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10ㄴ)의 ‘문센족’은 ‘문화센터족’으로, 문화 센터에서 취미 생활을 즐기는 사람을 이른다. (10ㄷ)에서 ‘맘조어’는 ‘맘(mom)’과 ‘조어(造語)’의 합성어로, 엄마들이 만들어내는 신조어를 말한다. ‘무브병’은 남성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태민’의 솔로곡 ‘무브(move)’에 폭 빠지는 일을 나타내는 단어로, 어떠한 것에 열광하거나 중독됨을 이르는 ‘병(病)’과 결합되었다.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가 모두 결합한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하위 유형의 수가 적은 편이며, 그에 따른 단어의 수 또한 그러하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11) ㄱ. 고유어+한자어+외래어: 혼행러
- ㄴ. 고유어+외래어+한자어: 집강스족, 혼케족

(11ㄱ)의 ‘혼행러’는 혼자 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로, ‘혼자+여행(旅行)+-er’의 구성을 이룬다. (11ㄴ)에서 ‘집강스족’은 멀리 휴양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혼케족’은 혼자서 케이크를 즐겨 먹는 사람들

가리키는 단어이다. 두 단어는 모두 고유어, 외래어, 한자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신어를 어종별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어 신어는 한자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자어가 곧 고유어라고 할 수 있으며, 복합 어원의 결합 양상 또한 단순한 편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표 8> 중국어 어종별 신어**

어종	단어
고유어	銀保監會, 進博會, 農業農村部, 相互保, 鋼鋁關稅, 信聯, 直播答題, 帶量采購, 衛健委, 限競房, 政治站位, 消費降級, 陸股通, 割韭菜, 社會人, 霸座, 特金會, 錦鯉 등
고유어+외래어	C位, C位出道, AI引擎, AI合成主播, AI班主任, GAFA稅.
외래어	GDPR, TMLF, NOPECA, 芬太尼, 丙通沙.

<표 8>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신어는 어원에 따라 단일 어원으로서는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뉘며, 복합 어원으로는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된 것만 존재한다. 2018년 중국어 신어 자료에 따르면 외래어의 경우 5개, 복합 어원 신어는 7개의 단어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어 고유어 신어의 수보다 훨씬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에 만들어진 중국어 외래어 신어는 모두 두문자어 차용어라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복합 어원 신어는 모두 외래어와 고유어의 순서로 결합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 8>에 나타난 형태 모두 외래어가 두문자어형으로 실현되었는데, 이는 중국어 외래어의 양상과 같다.

(12) ㄱ. 고유어: 錦鯉(jǐnlǐ)

ㄴ. 고유어+고유어: 電子孝心(diànzǐxiàoxīn), 土味(tǔwèi)

ㄷ. 고유어+고유어+고유어: 階梯式起床(jiētīshìqǐchuáng)

ㄹ. 고유어+고유어+고유어+고유어: 朋友圈成功人士(péngyǒuquānchénggōng)

rénshì)

2018년에 나타난 한 개의 고유 중국어로 된 신어는 주로 있는 단어의 기본 의미로 확장된다. 예시 (12ㄱ) ‘錦鯉’는 기본 의미가 비단잉어인데 신어로 나타나면 행운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예시(12ㄴ)는 두 개의 중국어가 결합된 신어 ‘土味’이다. ‘土味’는 2018년에 중국 신어 중에서 높은 비율<sup>10)</sup>이 나타난다. ‘土味’는 고유 중국어 ‘土’와 ‘味’를 결합하며 형성한 것이다. ‘土味’는 인터넷에서 촌스럽고 유행하지 않은 동영상, 이모티콘 및 남녀 간에 사용하는 달콤하고 촌스러운 말을 가리킨다. 예시 (12ㄷ)는 세 개 고유 중국어로 나타난 신어이다. ‘階梯式起床’는 고유 중국어 ‘階梯’, ‘式’, ‘起床’를 결합 형성된다. ‘階梯式起床’는 아침에 알람을 계속 끄고 생성하는 기상 방법을 통해 잠 들기 전에 여러 개의 알람을 설정한다고 말한다. ‘朋友圈成功人士’는 중국어 ‘朋友’, ‘圈’, ‘成功’, ‘人士’이 4개 고유어 결합 형식으로 형성된다. ‘朋友圈成功人士’는 위챗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직업과 조화로운 가정과 재미있는 생활을 보여주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의 실제 생활은 종종 그렇게 좋지 않다.

### 3.2. 품사별 신어

품사는 단어의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9품사 체계를 따른다.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의 품사 체계 가운데 관형사를 제외하고 개사(介詞), 접속사(接續詞), 양사(量詞), 의성사(擬聲詞)가 추가된 12품사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 품사는 그에 속하는 단어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는가, 문법적인 기능을 지니는가에 따라 내용어(content word)와 기능어(function word)로 나뉜다.

두 나라에서 조사한 2018년 신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와

10)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따르면 ‘土味’는 총 948 빈도가 나타나며 320개 신어 중에 50위를 차지한다.

중국어 신어는 모두 내용어에 속한다. 한국어 신어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형 신어로 나뉜다. 다음은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품사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한국어 품사별 신어**

품사	단어
명사 (218개)	혼코노, 퀴또속, 회알못, 좋못사, 스라벨, 네다청, 뽀시래기, 이맛현, 팡탈, 떡상 등
형용사 (2개)	시송하다, 인스타워시하다
동사 (1개)	뽀작거리다
부사 (1개)	렬루

<표 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어 품사별 신어에서 명사는 전체 222개 가운데 21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형용사, 동사는 각 1개 부사는 2개의 예만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는 ‘혼코노(혼자서 코인 노래방)’, ‘회알못(회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 등과 같이 명사구가 줄어든 신어뿐 아니라 ‘퀴또속(퀴팁에 또 속다)’, ‘좋못사(좋다 못해 사랑하다)’ 등의 동사구가 줄어든 것들도 명사형으로 취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어 신어는 한국어와 달리 부사를 제외한 명사, 형용사, 동사로 나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표 10> 중국어 품사별 신어**

품사	단어
----	----



명사 (284개)	銀保監會, 進博會, 農業農村部, 騎手, 相互保, 鋼鋁關稅, 信聯, 山竹, 衛健委, 限競房, 芬太尼, 政治站位, 消費降級, GDPR, 陸股通, 社會人, 快消品, 中興事件, C位, 百行征信, 特斯拉私有化, 中國農民豐收節, 石油幣, TMLF, 規上, 錦鯉, 獨角獸基金, 拒絕令, 嘀嗒出行, 湖長制, 新個稅法, 親清, 邪典, 通用數據保護條例, 綜合征稅, 沖頂大會, 店小二, 金特會, 相互寶, 紀法, 青桔單車, 前置倉, 規上工業, 德商, 鏈克, 區塊鏈媒體, 共享護士, 消防救援銜, 海南自貿試驗區, 反避稅條款, 雄安質量, 六個錢包, 頭雁效應, 冰屏, 互信共治, 公轉鐵壹口辦理, 區塊鏈電子發票, 馬甲車, 霸座男, 土味情話, 體檢, 網約房, 海草舞, 座霸, 貿易霸凌 등
동사 (22개)	官宣, 帶量采購, 霸座, 特金會, 停更, 皮壹下, 刷贊, 炒鏈, 直播答題, 候補購票, 碼上辦, 養火, 炫富捧, 明碼宰客, 霸鋪, 走花路, 走陵, 雙百行動, 數據投毒, 網絡植樹, IPP行動
형용사 (16개)	心商, 大數據殺熟, 硬核, 杠精, 沙雕, 盲式出軌, 土味, 達量限速, 獨角獸熱, 積極廢人, 雲寵, 鹽系, 泡菜溢價, 低級紅, 三降兩穩, qiou, 雲寵

<표 10> 또한 <표 9>과 마찬가지로 명사형 신어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동사는 22개, 형용사는 16개로, 전체 320개 신어 가운데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한국어보다는 그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언어에서는 공통적으로 명사형 신어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어가 주로 새롭게 나타난 사물이나 현상을 대상화하여 명명하는 방향으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신어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지칭하기 위한 생성 의도와 관련된다.

## 4. 한·중 신어 조어법 대조 분석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2018년 한국어 신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신어는 조어법에 따라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복합어는 합성어(compounds)와 파생어(derivatives), 혼성어(blends) 및 축약어(abbreviations)<sup>11)</sup>로 세분된다. 이들 조어법은 언어 보편적인 것으로, 중국어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혼성어, 축약어로 나누어 대조 분석함으로써 두 언어의 신어 조어 양상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밝히도록 하겠다.

### 4.1. 단일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형태소는 의미를 지닌 최소의 문법 단위이다. 단일어<sup>12)</sup>는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할 수 없는 단어라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에서는 ‘그리고’, ‘그러나’ 등과 같이 어원상 둘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복합어였던 것이 현대에는 단일어로 취급되기도 한다.

단일어 신어는 외국어 차용어, 새롭게 만들어낸 감탄사, 이미 있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것이 대표적이며, 자료에 따르면 단일어를 기반으로 신어가 형성되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일명 ‘야민정음<sup>13)</sup>’이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새로운 표기 방식에 따라 변형된 신

11) 축약은 두 부류로 나뉜다. ‘abbreviations’는 음절 축약을 뜻하는 한편, ‘acronyms’는 두문자어를 뜻한다. 두문자어는 표기 체계상 개별 문자가 곧 단어를 뜻하는 중국어와 초성, 중성, 종성을 한 음절로 모아 쓰는 한국어에서는 각각 초성에 해당하는 글자나 한어 병음을 사용하기는 하나, 잘 나타나지는 않는다.

12) 중국어에서는 ‘단순사(單純詞)’라 한다.

13) ‘야민정음’은 인터넷 커뮤니티 ‘디자이너사이드’의 하위 게시판인 ‘국내야구 갤러리’의 준말인 ‘야갤’과 ‘훈민정음’의 혼성어로,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에서 많이 쓰이는 한국어 통신언어 표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끼리 바꾸어 쓰는 방식을 취하며, 그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컨대 ‘유쾌하다→유크하다’, ‘귀엽다→커엽다’, ‘비빔면→네빔면’, ‘대한민국→머한민국’ 등과 같이 표기상 유사해 보이는 한글

어 등 창조적인 조어 양상을 보이는 형태도 발견되는바, 복합어 신어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4.1.1. 한국어 단일어

《2018년 한국어 신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단일어 신어는 총 35개로, 이 가운데 차용으로 형성된 것이 가장 많다. 여기에서는 한국어 단일어 신어를 기존의 단어가 변형된 것과 차용에 따른 것으로 나누어 한국어 단일어 신어의 조어 양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존의 단어가 변형된 단일어 신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유형에서의 ‘변형’은 표기 또는 의미가 본래의 표현과 달라진 것을 뜻한다. 표기의 변형은 표기나 발음의 유사성과 연관되며, 의미의 변형은 기존의 표현이 의미 확장을 겪은 형태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한 예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13) ㄱ. 네주얼, 명반
- ㄴ. 뽀시래기
- ㄷ. 흑우

(13)는 기존의 표현이 변형된 것을 유형에 따라 제시한 것이다. (13ㄱ)에서는 표기의 변형이 이루어진 형태가, (13ㄴ)에서는 의미의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13ㄷ)은 표기와 의미의 변형이 모두 이루어진 예이다.

(13ㄱ)의 ‘네주얼’, 명반은 각각 외래어 ‘비주얼(visual)’과 한자어 ‘명반(名盤)’에서 변형된 것으로, 이 단어에서는 ‘네’와 ‘비’, 그리고 ‘명’과 ‘평’이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표기의 유사성에 따른 형태에 해당한다. (13ㄴ)은

---

음절을 사용한 것이 있다. 그 외에도 ‘金’, ‘長’을 각각 ‘슌’, ‘툏’과 같이 한자를 유사한 한글 음절로 바꾸어 표기한 것과 ‘으아아아’와 ‘비버’를 ‘호옹이’, ‘뜨또’와 같이 한 단어를 시계 방향 또는 그 반대 방향으로 90도로 회전된 형태 등이 있다.

‘부스러기’의 남부 방언형으로, ‘잘게 부스러진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가 확장되어 작고 귀여운 동물 또는 사람을 이르는 긍정적 의미의 신어로 사용되고 있다<sup>14)</sup>. (13ㄷ)의 ‘흑우(黑牛)’는 본래 검은 소를 뜻하는 말로, 어리숙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뜻하는 ‘호구(虎口)<sup>15)</sup>’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특징에 따라 표기와 의미가 함께 변환 예이다.

다음은 한국어 단일어 신어 가운데 외국어 차용어에 대한 것을 다루고자 한다. 이 유형에서는 본래 외국에서 단일어뿐 아니라 복합어로 사용되던 형태 또한 한국에 들어와 단일어처럼 쓰이는 것도 포함한다. 해당하는 유형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4) ㄱ. 케렌시아(querencia)

- ㄴ. 노텔(notel), 베그패커(begpacker), 크립토재킹(cryptojacking)
- ㄷ. TMT, GRWM

(14) 가운데 (ㄱ)은 스페인어 단일어, 나머지 예는 영어 복합어의 예로, 차용에 의한 한국어 신어는 영어 차용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14ㄱ)의 ‘케렌시아’는 투우장에서 황소가 싸우기 전에 숨을 고르면서 쉬는 장소’라는 뜻을 지닌 스페인어 단어이다. 이 단어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14ㄴ, ㄷ)은 각각 영어 혼성어와 축약어의 예로, (14ㄴ)에서 ‘노텔’은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 모델을 뜻하며, ‘no’와 ‘model’이 결합한 형태이다. ‘베그패커’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구걸로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배낭 여행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단어는 구걸을 의미하는 ‘beg’와 배낭여행자를 뜻하는 ‘backpacker’가 한 형태로 굳어진 것이다. ‘크립토재킹’은 암호화폐를

14) 이외에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쓸 만한 것을 골라내고 남은 물건’, ‘하찮은 사람이나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15) ‘호구(虎口)’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과 바둑 용어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에 사용되는 ‘호구’는 후자에서 유래하였다. 호구는 바둑 용어로서 바둑돌 석 점이 둘러싸고 있고, 한 쪽은 트여 있는 배치를 뜻한다. 이 배치는 호랑이가 입을 벌린 모양과 같으며, 그 안에 돌을 두는 행위는 상대에게 다음 한 수로 따먹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이다.

뜻하는 ‘cryptocurrency’와 강탈을 의미하는 ‘hijacking’이 한 단어가 된 것이다. 이 단어는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몰래 설치한 후에 암호화폐를 채굴한 뒤 수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14ㄷ)에서 ‘TMT’는 ‘too much talker’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온 말로, 말이 많은 사람을 뜻한다. GRWM 또한 마찬가지로, ‘get ready with me’가 두문자어로 줄어든 단어이다. 이 단어는 유튜브(Youtube)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영상 콘텐츠로, 유튜브의 외출 준비 과정을 촬영한 브이로그(Vlog)<sup>16)</sup> 영상을 가리킨다. 이 유형의 신어는 한글로 표기할 때는 ‘투머치토키’, ‘갯레디위드미’와 같이 본말을 바탕으로 하지만, 축약형으로 쓰일 때는 알파벳 표기를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 4.1.2. 중국어 단일어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어 단일어 신어는 5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중국어 고유어, 그리고 외국어 차용어가 있다. 이 가운데 중국어 고유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일어 신어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5) 餿(gē), 鴨(yā)

(15)은 기존의 중국어 고유어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 쓰이는 단음절 신어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 가운데 비둘기를 뜻하는 ‘餿’는 중국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한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鴨’는 오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귀여운 사람을 이르는 데에도 쓰인다는 점에서 ‘餿’와 차이가 있다.

16) 브이로그는 ‘Video’와 ‘blog’의 혼성어로, 유튜브의 일상을 영상일기 형식으로 촬영한 콘텐츠를 이른다.

(16) 芬太尼(fēntàiní): 펜타닐(Fentanyl)

(16)의 ‘芬太尼’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차용한 단어이다. 여기에서 차용에 사용된 문자들은 음차(音借)를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의미는 없다. 이는 중국어에서 외국어로 명명된 지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신어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4.1.3. 한·중 단일어 대조

단일어는 기본적으로 두 언어 모두 하나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며, 기존의 단어가 의미 확장을 경험한 단어와 외국어에서 차용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자의 유형에 속하는 신어는 두 언어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나, 후자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외국어에서 복합어로 취급되는 것까지 단일어로 차용되었으며, 축약어의 경우 본말은 한글로, 줄어든 형태는 알파벳 그대로 표기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 외에도 한국어에서는 표기의 외형적 유사성과 발음의 유사성에 따라 형태적으로 변형을 겪은 단어가 발견되었으나, 중국어에서는 그러한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 4.2. 파생어

파생어는 실질 형태소의 어근과 접사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을 이르는바,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나뉜다. 이러한 파생법에 따라 나타난 신어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두 언어의 파생어 신어를 접두파생어와 접미파생어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4.2.1. 한국어 파생어

본 연구에서 활용한 2018년 《한국어 신어 자료》에서는 접두파생형 신어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였다. 그러나 접두파생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갓튜버’가 그 예이다. 이와는 달리 접미파생어는 총 16개로, 접두파생어보다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한국어 접두파생어는 자료의 제약으로 ‘갓튜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접미파생어는 개별 접미사를 어종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 4.2.1.1. 접두파생어

한국어 접두파생형 신어의 예로는 ‘갓튜버’가 있다. 물론 이 단어는 어근의 일부가 절단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래 형태는 ‘갓 유튜버’로 장경현(2019)에서는 신어를 생성하는 접두사<sup>17)</sup> 가운데 ‘갓-’의 용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접두 파생어라고 할 만하다.

‘갓-’은 본래 신을 뜻하는 영어 단어 ‘god’이 한국어에서 ‘최고’를 뜻하는 접두사로 차용되었다<sup>18)</sup>. 이러한 한국어의 신어 형성 접두사 ‘갓-’은 주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대상에 쓰이는데<sup>19)</sup>, 유튜브 방송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인 유튜버(YouTuber)의 절단형 ‘튜버’와 결합하여 ‘최고의 유튜버’라는 의미를 지닌다.

#### 4.2.1.2. 접미파생어

한국어 접미파생형 신어는 앞 절에서 다룬 접두파생어보다 종류가 다양한

17) 이 연구에서는 ‘개-/캐-, 꿀-, 험-, 갓-, 좇-, 핵-’ 등을 제시하였다.

18) 이러한 양상은 원어 ‘god’이 본래 명사였다는 점에서, 차용형인 ‘갓-’은 외국어 단어가 다른 언어에 차용되면서 문법 범주와 의미가 달라진 예라 할 수 있다.

19) 물론 ‘갓채석(갓+유채석)’, ‘갓겜(갓+게임)’ 등과 같이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에게 쓰이기는 하나, ‘갓수(갓+백수)’ 등과 같이 어떠한 대상의 처지를 조롱하거나 자조하는 데에 쓰이기도 하나, 전자의 쓰임보다는 많지 않은 편이다.

편이다. 한국어에서 신어를 생성하는 접미사는 크게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다음은 어종에 따른 한국어 신어 형성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의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1> 한국어 신어 형성 접미사 목록**

분류	접미사	단어 수
고유어	-하다	2
	-거리다	1
	-꾼	1
	-님	1
	-말	1
한자어	-족(族)	20
	-권(圈)	7
	-자(者)	2
	-체(體)	2
	-남(男)	1
	-단(團)	1
	-력(力)	1
	-선(船)	1
	-학(學)	1
외래어	-어/러(er)	2
	-리즘(ism)	1
계		45

<표 11>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신어를 만들어내는 접미사는 총 16개이며, 이 가운데 고유어는 5개, 한자어는 9개, 외래어는 2개이다. 고유어 접미사 가운데 동사,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와 동사 파생 접미사 ‘-거리다’를 제외



한 것들은 모두 명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한자어 접미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또한 고유어 접미사가 붙은 신어는 6개, 한자어 접미사는 36개, 외래어 접미사의 경우 3개로, 이 가운데 한자어 접미사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파생 접미사에 의해 형성된 신어의 예를 어중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유어 접미파생어 신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7) ㄱ. -하다: 시송하다, 인스타워시하다
- ㄴ. -거리다: 뽀짝거리다
- ㄷ. -꾼: 건본꾼
- ㄹ. -남: 리자남
- ㅁ. -말: 잠자리말

(17ㄱ)은 동사 또는 형용사 파생 접미사 ‘-하다’, (17ㄴ)은 동사 파생 접미사 ‘-거리다’, 나머지 예는 명사 파생 접미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미파생형 신어의 예이다. 동사 또는 형용사 접미파생어 신어의 경우 어떠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신어가 형성된 뒤에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명사형 접미파생어 신어보다는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명사형 접미파생어 신어는 기존에 쓰이던 명사와 결합한 양상을 보인다.

(17ㄱ)에 제시된 신어는 모두 형용사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신어에 해당한다. ‘시송하다’는 ‘시택이라 죄송하다’가 줄어들어 만들어진 신어로, 시택에서 겪는 어려움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각오를 표현한다. ‘인스타워시하다’는 SNS인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영어 형용사 ‘worthy’에 ‘-하다’가 결합한 말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대상이나 사진을 뜻한다. (17ㄴ)에서 ‘뽀짝’은 본래 남부 방언에서 ‘바짝’을 뜻하는 단어였으나, 어감에 따라 귀여운 대상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변하였다. 한편 ‘-거리다’는 어떠한 행동이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니는바, ‘뽀짝거리다’는 어떠한 대상의 모습이나 행동이 귀엽다는 뜻이다.

(17ㄷ)에서 접미사 ‘-꾼’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세 가지 뜻이 있으나<sup>20)</sup>, 여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건본’은 ‘건본 주택’이 절단된 말로, ‘건본꾼’은 건본 주택을 돌아다니며 돈을 갈취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17ㄷ) 또한 명사의 절단형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예로, ‘관리자’를 뜻하는 ‘리자’에 높임의 접미사 ‘-님’이 결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한 존중과 친근함을 표시하는 호칭어이다. (17ㄱ)의 ‘잠자리말’은 ‘잠자리’와 선행어가 지시하는 것 부근을 뜻하는 ‘-말’이 결합하여 ‘잠자리 근처’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자어 접미파생어 신어는 주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사람을 집합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사물, 권역 및 양식, 능력, 학문 등을 지칭하는 단어도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18) ㄱ. -족(族): 염전족, 자라니족, 홀로족, 팻미족, 골로족 등
- ㄴ. -권(圈): 게이트권, 뷰세권, 편세권
- ㄷ. -자(者): 변포자, 연포자
- ㄹ. -체(體): 급여체
- ㅁ. -남(男): 키링남
- ㅂ. -단(團): 읍알단
- ㅅ. -력(力): 궁예력
- ㅇ. -선(船): 백골선
- ㅈ. -학(學): 퀴어학

(18ㄱ, ㄷ, ㅁ, ㅂ)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을 집합적으로 이르는 신어이다. 이 가운데 (18ㄱ)의 ‘-족’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지니는바, ‘염전족’은 소비에 인색함을 뜻하는 ‘짜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염전’과 해당 접미사가

2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꾼’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①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② ‘어떤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③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결합한 신어이다. 또한 ‘자라니족’은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운전자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야생동물인 고라니와 비슷하다고 하여 생겨난 신어이다.

‘홀로족’과 ‘골로족’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를 이루는 단어로, 두 단어 모두 ‘인생은 한번뿐’이라는 의미의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홀로족’과 ‘골로족’은 각각 ‘홀로’와 죽음을 속되게 이르는 ‘골로 가다’가 ‘YOLO’와 결합하여 생겨난 말이다. 파생어 신어 중에서 한자어 접미사로 파생된 신어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홀로족’은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며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을, ‘골로족’은 ‘당장의 행복만을 좇으며 살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펫미족’의 경우 ‘pet’과 ‘me’가 합성된 말로, 반려동물을 자신과 같이 아끼는 사람의 무리를 지칭한다.

(18ㄷ)에 제시된 단어는 모두 ‘~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따르면 ‘변포자’는 ‘변호사 시험을 포기한 사람’, ‘연포자’는 ‘연애를 포기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18ㄹ)의 ‘-남’은 남성을 지칭하는 접미사로, ‘키링남’은 열쇠고리(key ring)처럼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남자를 의미한다. 한편 (18ㄴ)에서는 어떠한 단체를 뜻하는 ‘-단’의 경우 ‘웁션 열기 알바단<sup>21)</sup>’을 뜻하는데,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친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의 정치 관련 뉴스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함으로써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장경현(2019: 312)에 따르면 이상의 단어는 어떠한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의미를 지니는 접미사는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웁알단’과 같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생겨난 신어에서 단순한 유행 및 사회 변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단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접미파생형 신어의 생성에서 ‘-족(族)’의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장경현(2019: 312~313)

21) ‘웁션 열기’는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서 댓글 내용을 복사하여 다른 곳에 작성할 경우, 댓글란에서 아이디 옆의 아이콘까지 드래그하여 다른 곳에 붙여넣었을 때 나타나는 문자열이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댓글을 복사하여 다른 댓글을 작성할 때 쓸데없는 내용까지 나타나는 경우를 이른다. ‘알바단’의 경우 어떠한 정치적 사건에 대한 특정 성향의 여론을 형성하는 댓글을 대량으로 작성하고, 돈을 받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한다.

에서는 기존에도 ‘오렌지족, 딩크족, 님비족’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신어에 ‘-족’을 꾸준히 사용해왔으며, 이러한 표현들이 언중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한편 (18ㄴ)의 ‘-권’은 일정한 공간적 범위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여기에 제시된 ‘게이트권’, ‘뷰세권’, ‘편세권’은 모두 ‘~이 가까운 곳에 있는/~이 좋은 주거 단지’를 뜻한다. ‘게이트권’은 미군 부대가, ‘편세권’은 편의점이 가까운 주거 단지를 이른다. ‘뷰세권’의 ‘뷰’는 전망을 뜻하는 ‘view’로, 집 주변의 전망이 좋은 주거 지역을 뜻한다.

(18ㄷ)의 ‘-체’는 어떠한 형식 또는 양식을 가리키며, ‘급여체’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들 사이에 사용하는 말하기 방식을 뜻한다. 이는 ‘급식체<sup>22)</sup>’와 대조되는 성격의 신어에 해당한다. (18ㄸ)의 ‘궁예력’은 신라 말기 후고구려를 건국한 궁예(弓裔)와 어떠한 능력이나 힘을 뜻하는 ‘-력’이 결합한 말로, 궁예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관심법(觀心法)’이라는 능력을 지녔다는 특징에서 명명된 신어이다. 이러한 점에서 ‘궁예력’은 어떠한 일을 예측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18ㄹ)의 ‘백골선’은 어업에 종사하는 북한 어부가 조업 도중 악천후를 만나 사망하여 백골이 된 상태로 한국 땅에 흘러들어온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18ㅁ)에서 성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신홍학문을 뜻하는 ‘퀴어학<sup>23)</sup>’은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학’이 결합하여 생성된 신어의 예이다.

마지막으로 외래어 접미사로 파생된 신어의 예를 살펴보겠다. 외래어 접미사의 경우 그 수가 고유어와 한자어보다 적으며, 파생된 단어의 수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를 제시한 것이다.

- (19) ㄱ. -어(er): 엔잡러, 혼행러  
 ㄴ. -리즘(ism): 각시탈리즘

22) ‘급식체’는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주 사용층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초·중·고등학생이라는 특징에 따라 명명되었다.

23) 퀴어학은 성 소수자들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거나 성 소수자들의 역사, 인종, 민족, 사회 구조적 불평등 등을 다루며 다양한 분야와의 학제적 연구를 동반하는 분야를 가리킨다.

(19ㄱ)의 ‘-어/러’는 어떠한 일을 즐기는 사람 또는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이르는 영어 접미사 ‘-er’의 차용형이다. ‘엔잡러’는 여러 수를 의미하는 알파벳 ‘n’과 직업을 뜻하는 ‘job’과 ‘혼행러’는 ‘혼자’와 ‘여행’의 각 음절과 ‘-er’이 결합한 말이다. 두 단어의 의미는 각각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가진 사람’, ‘혼자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19ㄴ)에서는 ‘주의(主義)’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이즘(ism)’이 사용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각시탈리즘’은 고유어 ‘각시탈’과 외래어 접미사 ‘-이즘’이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다. ‘각시탈리즘’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일제에 맞서 싸운 민족 영웅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의 제목을 따라 만들어진 말이다. 이 단어는 2018년 개최된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인이 독일과 일본의 상대국을 응원한 데에서 사용되었는데, 독일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전범 국가라는 점에서 상대 국가로 하여금 두 나라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것이다.

## 4.2.2. 중국어 파생어

고효방(2007)에 따르면 중국에서 파생법은 ‘부가법(附加法)’이라 하며, 접두파생어는 ‘전부가식(前附加式)’으로, 접미파생어는 ‘후부가식(后附加式)’이라 하였다. 중국어의 경우 언어 형태의 변화도 크지 않은 편이며, 그에 따라 파생어도 적다. 그러나 파생의 양상은 한국어와 크게 차이가 없이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파생어 신어를 한국어와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 4.2.2.1. 접두파생어

중국어의 접두파생어는 본래 자립 형태소였던 것이 의존 형태소가 된 것으

로, 다른 어근과 결합함으로써 접두사의 기능을 지닌다.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따르면 신어 형성 접두사는 총 7가지가 있으며, 이들 접두사는 고유어와 외래어로 어중에 따라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뉜다. 다음은 중국어 신어 생성과 관련된 파생 접두사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개별 접두사의 의미와 파생 단어 수를 제시한 것이다.

<표 12> 중국어 신어 형성 접두사 목록

분류	접두사	의미	단어 수
고유어	刷(shuā)-	본래 ‘쓸다’를 뜻하나, 신어의 경우 어떠한 일을 빠른 속도로 처리함을 의미한다.	1
	微(wēi)-	중국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의 중국어명 ‘微信(wēixìn)’에서 비롯된 말로, 위챗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또는 그를 행하는 사람을 뜻함.	1
	抖(dǒu)-	중국발 SNS인 틱톡(Tiktok)의 중국어명 ‘抖音’에서 비롯된 말로, 틱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또는 그를 행하는 사람을 뜻함,	2
	反(fǎn)-	후행하는 단어의 의미와 반대됨을 이르는 말.	2
	零(líng)-	후행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의 양이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음을 이르는 말.	1
	渣(zhā)-	본래 ‘찌꺼기’를 이르는 말로, 후행하는 대상의 질이 좋지 못함을 나타내는 단어	2
외래어	C(center)-	중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 ‘center’의 첫 글자를 차용한 형태	2
계			11

<표 12>에 따르면 2018년에 나타난 중국어 고유어 신어 파생 접두사는 총 6개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외래어 접두사는 ‘-C’ 하나뿐이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어의 접두과생형 신어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어중에 따라 고유어, 외래어 순으로 개별 접두사에 의한 신어의 형태와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겠다. 먼저 고유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20) ㄱ. 刷-: 刷贊(shuāzàn)
- ㄴ. 微-: 微稅務(wēishuìwù)
- ㄷ. 抖-: 抖商(dǒushāng), 抖友(dǒuyǒu)
- ㄹ. 反-: 反殺案(fǎnshāàn)
- ㅁ. 零-: 零爆款(língbàokuǎn)
- ㅂ. 渣-: 渣男(zhānán), 渣女(zhānǚ)

(20ㄱ)의 ‘刷-’는 본래 ‘쓸다’를 의미하는 동사이나, 어떠한 일을 빠르게 처리한다는 뜻의 접두사로서 쓰이고 있다. 이에 따라 ‘刷贊’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할 때 스크롤을 빠르게 내리는 행위를 뜻한다. 2018년 이전의 신어에도 ‘刷題(shuātí)’, ‘刷單(shuādān)’ 등과 같은 단어가 있었다. 전자의 단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푼다는 뜻이고, 후자는 업체 측에서 판매 순위를 빠르게 올리기 위해 제품을 사재기하는 것을 이른다.

(20ㄴ)의 예에 사용된 ‘微-’는 형용사로 ‘작다’라는 뜻이나, 여기에서는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가리킨다. ‘微稅務’에서 ‘稅務’는 한국어로 세무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위챗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서 지원하는 세금 납부 시스템을 뜻한다. (20ㄷ) 또한 ‘抖’은 중국의 SNS 서비스인 ‘틱톡’을 가리키는 말로, 본래 ‘떨다’의 뜻을 지닌 동사이다. 이에 따라 ‘抖商’은 틱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抖友’는 틱톡에서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전술한 바에 따르면 ‘微-’와 ‘抖-’는 모두 기존의 어휘적 용법을 대체한 것으로, 이는 새롭게 생겨난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0ㄹ)의 ‘反-’은 후행하는 개념과 반대되는 의미를, (20ㅁ)의 ‘零-’은 후행하는 대상의 수량이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휘적 용법을 그대로 따른다. (20ㄹ)에 제시된 ‘反殺案’은 정당 방위에

따른 살인이라는 뜻으로, ‘殺案’은 살인을 뜻한다. ‘反殺案’의 경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살인 행위는 피의자의 의도가 명백한 반면,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그와 반대된다는 점에서 명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20口)의 ‘零爆款’의 ‘爆款’은 판매량이 높거나 인기가 많은 상품 또는 매체를 의미하는바<sup>24)</sup>, 이 단어는 잘 팔리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뜻한다.

(20日)에서는 (20ㄱ)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어휘적 의미가 확장된 양상을 보이는데, ‘渣-’는 본래 ‘찌꺼기’를 의미하는 명사였다. 그러나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에 선행하여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한국어의 ‘쓰레기’와 쓰임이 비슷하다. 따라서 ‘渣男, 渣女’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 남자 또는 여자로, 여기에서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이른다.

한편 2018년에 발견된 중국어의 외래어 접두사는 기존의 영어 단어 철자 표기에서 첫 글자만을 따온 ‘C-’가 있다. ‘C-’는 대응되는 표기가 없어 알파벳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다음은 ‘C-’가 사용된 예를 제시한 것이다.

(21) C-: C位(Cwèi), C位出道(Cwèichū dào)

(21)의 C-는 ‘중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 ‘center’에서 유래하였으며, 여기에 제시된 단어는 모두 중국의 온라인 유행어이다. ‘C位’은 중심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이며, 어떠한 팀의 핵심 구성원이나 드라마의 주연 등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한편 ‘C位出道’는 중국의 아이돌 서바이벌 방송에서 ‘센터 데뷔’를 뜻하는 말이다. 즉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 투표 결과 1위를 차지한 후보를 뜻하며, 아이돌 그룹 내에서도 외모와 가창력이 출중한 구성원을 지칭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 4.2.2.2. 접미파생어

24)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는 주로 상품을 가리켰으나, 2018년부터 드라마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고한 중국어 신어 자료에 따르면 파생 접미사는 총 15개이다. 그러나 어종상 접미사는 모두 고유어에 속하며, 명사 파생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국어 신어 형성 접미사의 종류 및 의미, 개별 접미사와 결합한 단어의 수는 다음과 같다.

<표 13> 중국어 신어 형성 접미사 목록

분류	접미사	의미	단어 수
고유어	-商(shāng)	선행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값을 나타냄.	2
	-戀(liàn)	연애 방식을 나타냄.	1
	-化(huà)	선행어의 상태 변화를 나타냄.	2
	-體(tǐ)	방식이나 격식을 나타냄.	2
	-系(xì)	선행어의 계통을 나타냄	2
	-式(shì)	방식을 나타냄.	1
	-族(zú)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 사람의 무리 또는 그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냄.	1
	-症(zhèng)	증상을 나타냄.	1
	-党(dǎng)	집단을 나타냄.	1
	-圈(quān)	범위를 나타냄.	2
	-核(hé)	선행어의 핵심 요소를 나타냄.	1
	-精(jīng)	선행어가 가리키는 성품을 지닌 사람을 나타냄.	1
	-人(rén)	어떠한 유형의 사람을 나타냄.	3
	-力(lì)	어떠한 능력이나 힘을 나타냄.	1
외래어	-粉(fěn)	본래 ‘가루’를 뜻하나, ‘팬(fan)’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함.	1
계			22

<표 13>에 따르면 개별 접미사마다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族’, ‘-體’, ‘-力’와 같이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접미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가 사용된 신어는 모두 9개이며, 대상의 상태 및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각각 6개, 1개이다. 또한 대상의 체계, 방식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신어는 각각 4개, 2개이다. 각 유형마다 신어의 개수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사람을 나타내는 접미사의 생산력이 높다는 점은 한국어와 유사하다. 그러나 개별 접미사의 경우 파생된 신어가 1~3개로 이들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먼저 위에서 제시한 접미사의 유형 가운데 어떠한 범주 안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접미사는 ‘-系, -粉, -族, -党, -精, -人’이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에 제시하였다.

- (22) ㄱ. -系: 鹽系(yánxi)
- ㄴ. -粉: 數據粉(shùjùfěn)
- ㄷ. -族: 炸街族(zhàjiēzú)
- ㄹ. -党: 帶路党(dàilùdǎng)
- ㅁ. -精: 杠精(gāngjīng)
- ㅂ. -人: 走陵人(zǒulíng rén)

(22ㄱ)은 ‘-系’가 사용된 예로, ‘鹽系’는 소금의 흰 빛깔과 같이 깔끔하고 세련된 사람을 뜻한다<sup>25)</sup>. (22ㄴ)의 ‘-粉’은 어떠한 대상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fan’이 음역법(音譯法)<sup>26)</sup>으로 차용된 것이다. 여기에서 ‘數據粉’ 가운데 ‘數據’은 본래 ‘데이터(data)’를 의미하는 단어이나, 온

25) ‘-系’가 사용된 예는 2018년 이전에도 나타나는데, ‘奶系, 貓系, 犬系’ 등이 있다. ‘奶系’은 우유와 같이 피부가 희고 귀여운 사람을 가리키며, ‘貓系’는 고양이와 같이 집에 있는 것 또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른다. ‘犬系’는 ‘貓系’와 반대되는 말로, 밖으로 놀러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26) 단어의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표기된 문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인 매체에서는 아이돌 팬들이 해당 아이돌의 신보나 신곡을 자국의 음반/음원 차트 1위에 올리기 위한 행동 전반을 뜻한다. 따라서 ‘數據粉’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음반/음원 차트 1위를 위하여 음반이나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재생하는 팬들을 뜻한다.

(22ㄷ)에서 ‘炸街族’의 경우, ‘炸街’는 직역하면 ‘거리를 폭파시키다’라는 뜻이나, 밤중에 오토바이를 매우 시끄럽고 난폭하게 몰기를 즐기는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여기에 ‘-族<sup>27)</sup>’이 결합하면 그러한 행동을 즐기는 사람을 뜻하며, 한국어의 ‘폭주족’의 개념과 유사하다. (22ㄷ)의 ‘帶路黨’은 역사적으로 청나라 말기에 침략자들에게 부역하는 사람들, 즉 매국노(賣國奴)와 같은 말이다<sup>28)</sup>. 오늘날인 중국인을 무시하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친절한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이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2ㄹ)에 쓰인 ‘-精’은 본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한편 해당 접미사의 선행어인 ‘扛’는 말싸움하기를 뜻하는 동사 ‘擡扛(táigàng)’의 축약형이다. 앞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은 말싸움을 할 목적으로 타인의 의견에 매번 반대를 일삼는 사람을 뜻한다<sup>29)</sup>. (22ㄹ)의 ‘走陵人’은 능묘(陵墓)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던 일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상의 예는 모두 특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가 붙어 형성된 신어에 해당한다. 다만 ‘-粉’은 누군가의 팬을 뜻하는 것으로 선행어가 주로 연예인 또는 아이돌과 관련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접미사보다 그 쓰임이 특수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상의 상태 및 능력과 관련된 것과 관련한 접미파생형 신어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접미사는 ‘-商, -化, -症, -核, -力’등이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7) ‘-族’의 또다른 예로는 ‘手機族, 年輕族, 熬夜族, 閃婚族’ 등이 있다. ‘手機族’는 휴대폰 중독자를, ‘年輕族’는 젊은 사람을, ‘熬夜族’는 밤을 새거나 철야 업무를 밥먹듯이 하는 사람을, ‘閃婚族’은 빠르게 결혼한 사람, 즉 이른 나이에 결혼한 사람을 이른다.

28) 이와 같은 말로 ‘漢奸(hànjiān)’

29) 다른 예로 ‘戲精’, ‘檸檬精’ 등이 있다. ‘戲’는 연기를 뜻하기도 하며, 동시에 연예인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러한 ‘戲精’은 일상생활에서 연예인을 따라하는 일반인을 이른다. 한편 ‘檸檬精’에서 ‘檸檬’은 레몬을 뜻하는데, 연애 중인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는 독신인 사람을 이른다.

(23) ㄱ. -商: 心商(xīnshāng)

ㄴ. -化: 网約化(wǎngyuēhuà), 數字資產化(shùzìzīchǎnhuà)

ㄷ. -症: 鄉痛症(xiāngtòngzhèng)

ㄹ. -核: 硬核(yìnghé)

ㅁ. -力: 漲粉力(zhǎngfěnli)

(23ㄱ)에서 사용된 접미사 ‘-商’은 어떠한 상태를 수치화한 것을 이르는 바<sup>30)</sup>, ‘心商’은 정신지수(mental intelligence quotient)를 뜻한다. 정신지수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을 이른다. (23ㄴ)의 ‘-化’는 대상의 상태 변화를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예 가운데 ‘网約化’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선별을 통해 수요와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서비스를 지능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르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인터넷 예약제를 뜻한다. 한편 ‘數字資產化’는 무형 자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른다. 이러한 ‘-化’의 쓰임은 한국어의 ‘-화’와 다르지 않다.

(23ㄷ)에서는 ‘-症’은 증상을 뜻한다. 여기에서 ‘鄉痛症’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증에 비유한바, 이 단어는 한국어의 ‘향수병(鄉愁病)’과 같은 의미에 해당한다. (23ㄹ)은 ‘핵심’을 의미하는 접미사 ‘-核’과 견고한 상태를 의미하는 ‘硬’이 결합한 말로,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나 하드코어(hardcore) 음악을 뜻한다. 그 외에도 중국어에서는 멋있는 사람을 이르는 데에도 사용한다. (23ㅁ)에서는 대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접미사 ‘-力’의 예로, ‘漲粉力’의 ‘漲’은 ‘부피가 커지다’의 의미로, 곧 많은 팬을 거느리는 연예인의 능력이나 매력을 나타내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대상의 체계, 방식 또는 범위를 나타내는 접미사는 ‘-戀, -體, -式, -圈’등이 있다. 다음은 각 접미사에 의해 파생된 신어의 예이다.

(24) ㄱ. -戀: 冷戀(lěngliàn)

ㄴ. -體: 城市智能體(chéngshìzhìnéngtǐ), 強國體(qiánguóguóttǐ)

30) ‘-商’에 대한 또다른 예로는 ‘逆商(nìshāng)’, ‘財商(cáishāng)’ 등이 있다. ‘逆商’는 역경지수(Adversity Quotient), ‘財商’는 금융지수(Financial Quotient)를 뜻한다.

- ㄷ. -式: 拼多多式(pīnduōduōshì)
- ㄹ. -圈: 胖圈(pàngquān), 礦圈(kuàngquān)

(24ㄱ, ㄷ)은 어떠한 방식을 뜻하는 접미사의 예로, (24ㄱ)의 ‘-戀’은 연애 방식에 대한 뜻을 더한다는 점에서 (24ㄷ)의 ‘-式’과 차이가 있다. ‘冷戀’은 담담하고 냉정한 연애 방식으로, 소위 ‘쿨한 연애’라고 할 수 있다<sup>31)</sup>. 한편 ‘拼多多式’은 중국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拼多多’와 ‘-式’이 결합한 말로, 특정 상품의 판매에 비례하여 가격을 할인해주는 ‘拼多多’의 운영 방식을 나타낸다.

(24ㄴ)의 ‘-體’는 인간의 신체를 의미하는 명사로, 여기에서는 체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양식을 나타내는 한국어의 ‘-체’와는 다른 쓰임을 보인다. ‘城市智能體’와 ‘強國體<sup>32)</sup>’는 각각 한 유기체로서의 도시와 국가를 가리키는데, 그중 ‘城市智能體’는 디지털화에 따른 미래 도시상을 나타낸다. ‘強國體’는 부강한 하나의 국가를 뜻하는 말로, 중국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 모토에 해당한다. 한편 (24ㄹ)에서 사용된 ‘-圈’은 대상의 범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권’과 의미가 유사하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생활 양식을 가리킨다<sup>33)</sup>. ‘胖圈’은 본래 비만인의 생활 패턴을 뜻하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礦圈’은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업체의 범위를 말한다. 이 가운데 ‘礦’은 광산을 뜻하는데, 가상 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이 광산과 유사하기 때문에 ‘礦圈’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

### 4.2.3. 한·중 파생어 대조

이 항에서는 2018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 파생어 신어를 분석한 결과를 대조하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어의 경우 접두파생형 신어가 나타

31) 그 외에 ‘网戀(wǎngliàn)’, ‘熱戀(rèliàn)’ 등의 단어도 있는데, 전자는 인터넷으로 하는 연애를 뜻한다. 이 단어는 한국어의 ‘랜선 연애’와 같으며, 후자의 단어는 ‘정열적인 연애’를 의미한다.

32) 이 단어는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의 2018년 신년 헌사(獻辭)에서 나타났다.

33) ‘胖圈’ 외에도 ‘朋友圈(péngyouquā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친구 사이의 생활 패턴을 의미한다.

나지 않았다. 물론 ‘갯튜버’의 ‘갯-’과 같은 예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예만으로는 한국어의 접두파생형 신어의 전모를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접미파생형 신어의 경우 파생 접미사는 총 16개이며, 이들 접미사로 형성된 신어는 총 45개이다. 이 가운데 한자어 접미사는 9개이며, 파생 신어 수는 36개라는 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중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족’으로 형성된 신어는 20개라는 점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족’이 사회 변화 및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중국어의 경우 접두사와 접미사 모두 고유어형이 압도적이며, 그 종류도 한국어보다 다양하다. 접두사는 ‘微-’와 ‘抖-’와 같이 새로 생겨난 브랜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으로, 그 브랜드와 관련된 것이라는 뜻을 더한다는 점에서 기존 단어의 용법을 대체한 예가 발견되었다. 접미사의 경우 한국어와 유사하게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 사람을 집합적으로 이르는 접미사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별 접미사에 따른 신어의 수는 1~3개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접미사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한국어와는 달리 생산성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형용사 또는 동사 파생 접미사로 형성된 신어가 있는 반면, 중국어의 접미파생형 신어는 모두 명사 파생으로 이루어졌다.

### 4.3. 합성어

합성은 두 개 이상의 자립적인 단어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이며,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표현할 때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된다. 단 일어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는 언중들에 의해 이해되고 사용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합성어는 기존의 낱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적어진다(김일병, 2000: 14).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동일하며, 합성에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는 품사에 따라 합성명사<sup>34)</sup>,

합성동사, 합성형용사 등으로 나뉜다.

### 4.3.1. 한국어 합성어

한국 《신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나타난 한국어 신어 가운데 합성법에 따라 생성된 것은 총 36개로, 이들 단어는 모두 합성명사에 속한다. 물론 ‘명사+동사/형용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으나, 실제로는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합성명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류한 합성명사는 ‘명사+명사’, ‘동사+명사’, ‘감탄사+명사’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데, 이 가운데 명사끼리의 결합이 가장 생산적이다.

먼저 ‘명사+명사’ 구성의 합성어 신어부터 분석하고자 한다. 이 유형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서로 다양하게 결합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5) ㄱ. 개딸

- ㄴ. 얼굴라테
- ㄷ. 맘조어, 가성비템
- ㄹ. 상사병, 고독방
- ㅁ. 떡상

(25ㄱ)은 ‘고유어+고유어’ 구성의 예로, ‘개딸’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딸처럼 여기는 암컷 반려견이라는 뜻이다. 한편 다른 하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딸이라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개’가 동물이 아닌 ‘행실이 형편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25ㄴ)에서는 ‘고유어+외래어’의 방식으로 형성된 신어인 ‘얼굴라테’가 제시되어 있다. ‘얼굴라테’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라테’로, 고유어 명사 ‘얼굴’과

34) 이익섭·채완(1999)에 따르면 합성명사의 구성 방식을 ‘명사+명사’, ‘명사+ㄱ+명사’, ‘관형사+명사’,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부사+명사’, ‘동사의 부사형+명사’, ‘한자어 어근의 결합형’, ‘동의 중복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우유가 들어간 커피를 뜻하는 이탈리아어 명사 ‘라테’가 합성된 말이다. (25ㄷ)의 ‘맘조어’는 외래어 ‘맘(mom)’과 한자어 명사 ‘조어(造語)’가 결합한 말로, 엄마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를 이른다. ‘가성비템’은 한자어와 외래어의 결합으로, ‘템’은 물건을 뜻하는 영어 외래어 ‘아이템(item)’에서 온 말이다. 이 단어는 어떤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 좋은 물건을 가리킨다.

(25ㄹ)의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 명사인 ‘상사병’은 한자로 표기하면 ‘上司病’으로, 직장 상사에 대한 병적인 수준의 스트레스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생성된 ‘고독방(孤獨房)’은 SNS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을 뜻하는데, 글 없이 사진만으로 소통한다는 뜻이다. (25ㅍ)은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으로 생성된 합성어의 예로, ‘떡상’은 고유어 명사 ‘떡’과 한자어 명사 ‘상(上)’으로 구성된다. 이 단어는 ‘폭등하다, 급등하다’와 동의어로 쓰이며, 주가(株價) 등과 같이 어떠한 대상의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한다는 의미를 지닌다<sup>35)</sup>.

다음으로 ‘동사+명사’, ‘감탄사+명사’ 구성의 합성명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에 대한 예는 ‘펌핑방’이 있다. 이 단어는 대상을 끌어올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영어 동사 ‘pumping’과 한자어 ‘방’이 합성된 것이다. ‘펌핑방’은 주로 미리 짠 값에 암호화폐를 매수하여 자체 거래로 시세를 부풀린 뒤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운영되는 대화방을 뜻한다. 한편 후자의 예는 ‘넵병’이 있다. 여기에서 ‘넵’은 긍정의 대답말 ‘네’의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변이형은 직장인들에게 많이 쓰이는데, 자칫 딱딱하게 들릴 수 있는 ‘네’와 가볍고 장난스러워 보일 수 있는 ‘넵’ 대신 선택된다. 이에 따라 ‘넵병’은 ‘넵’을 자주 사용하는 현상을 병에 빗대어 이르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명사+동사’의 형식으로 나타나나 한국어에서 명사형으로 사용되는 신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예는 ‘국가픽’이 있다. ‘픽’은 본래 ‘고르다’를 뜻하는 영어 동사 ‘pick’에서 차용된 것으로, ‘국가픽’은 주로 국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섭외 또는 초청된 연예인을 뜻한다.

35) ‘떡상’의 반대말로 ‘떡락(-落)’이 있다. 그 의미는 ‘폭락하다, 급락하다’와 같다.



### 4.3.2. 중국어 합성어

중국어를 합성법에 의해 만들어진 신어는 총 208개로, 합성명사와 합성형용사로 나뉘기는 하지만 합성명사가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합성동사, 합성명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에서는 다른 품사로 쓰이는 단어도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예를 들어 살펴보겠다.

먼저 중국어의 합성명사형 신어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어종이 아니라 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와 명사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26) ㄱ. 娃娃高管(wáwágāoguǎn), 親情價(qīnqíngjià), 竹子定律(zhúzdìnglǜ)
- ㄴ. 共享護士(gòngxiǎnghùshì), 養火(yǎnghuǒ), 語音合同(yǔyīnhétóng)
- ㄷ. 嫩總(nènzǒng), 精老爺們(jīnglǎoyemen)
- ㄹ. 六個錢包(liùgèqiánbāo)

(26ㄱ)은 명사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진 신어로, ‘娃娃高管’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娃娃’와 기업에서 고위 임원을 가리키는 ‘高管’이 결합한 말이다. 즉 이 단어는 젊은 나이의 임원급 관리자를 긍정적으로 지칭하는 의미이다. ‘親情價’는 부모에게 비싼 선물을 할 때, 싸게 산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뜻한다<sup>36)</sup>. 이는 부모의 부담과 걱정을 덜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竹子定律’은 대나무를 뜻하는 ‘竹子’와 ‘법칙’과 같은 단어인 ‘定律’이 결합하여 ‘대나무의 법칙’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신어이다. 이 단어는 대나무가 초기에는 생장이 더디지만, 어느 순간 빨리 자란다는 특징에 따라 대상에게 분발하도록 격려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26ㄴ)에서는 동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명사 신어가 제시되어 있다. ‘共享護士’는 ‘모두와 함께하는 간호사’ 정도의 뜻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를 뜻한다. ‘養火’는 ‘QQ’ 등의 중국발 소셜 플랫폼에서 나타

36) 이를 응용한 표현으로 ‘友情價’가 있다.

난 말로, 두 명의 사용자 간의 관계를 불꽃 모양으로 나타낸 데에서 유래한다. 이에 빗대어 ‘養火’ 두 사용자 간의 우호적 감정을 기르는 일을 뜻한다. ‘語音合同’의 경우 ‘語音’은 동사로 ‘통화하다’라는 뜻을 지닌다. ‘合同’은 계약을 의미하는 명사인데, ‘語音合同’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고객과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통화로 사용 계약을 한다는 뜻이다.

(26ㄷ)은 형용사와 명사로 구성된 신어로, ‘嫩總’는 (26ㄱ)의 ‘娃娃高管’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에서 형용사 ‘嫩’은 어리다는 뜻이며, ‘總’은 조직의 총지휘자를 의미한다. ‘精老爺們’은 외모 관리에 열중하는 남자를 뜻하는 단어이다. 여기에서 ‘精’은 섬세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며, ‘老爺們’은 중국 북방 지역에서 남자인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이지만 이 단어에서는 남성을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26ㄹ)은 수사와 명사가 결합한 신어로, ‘六個錢包’는 직역하면 여섯 개의 지갑을 뜻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할 사람의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신랑과 신부의 조부모까지 돈을 마련하는 상황에 빗대어 생겨난 말이다.

한편 중국어 합성형용사로는 ‘隱形貧困’ 등이 있다. 이 단어는 동사와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隱形’는 ‘모습을 감추다’의 뜻이며, ‘貧困’은 가난을 뜻하는 형용사이다. 즉 ‘감추어진 가난’이라는 뜻으로,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활이 빠듯하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능력 이상으로 소비하여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합성명사나 합성동사의 구성을 지니는 단어가 실제로는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 있다. 이는 앞 항의 ‘국가픽’과 ‘박풀’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27) ㄱ. 直播答題(zhíbōdátí), 貿易霸凌(màoyìbàlíng)  
 ㄴ. 消費降級(xiāofèijiàngjí)  
 ㄷ. 低級紅(dījíhóng)

(27ㄱ)은 명사와 동사가 결합하여 합성명사가 된 신어의 예로, 형식은 동사이나 실제적으로 명사로 사용되는 것들이다. ‘直播答題’는 ‘생방송 퀴즈쇼’로,

‘생방송’을 뜻하는 ‘直播’과 ‘문제를 풀다’라는 ‘答題’가 합성된 말이다. ‘貿易霸凌’은 ‘무역 따돌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바, 무역국 간 경제 강국이 자신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나라를 제재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를 말한다.

(27ㄴ)은 합성동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로, ‘消費降級’은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 단어는 브랜드에 대한 수요 감소로 물가 변동과 소비자의 심리에 따라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 행태와 관련이 있다. (28ㄷ)에 제시된 ‘低級紅’은 합성명사이지만 형용사처럼 쓰이는 신어이다. 이 단어는 정부 차원에서 애국주의를 분출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반감을 사는 것을 뜻한다.

### 4.3.3. 한·중 합성어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의 합성어 신어를 살펴본 결과, 두 언어 모두 합성명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단어 내적으로 합성동사나 합성형용사 등의 구성을 지니고 있으나, 명사로 쓰이는 예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합성어 신어가 36개이며, 중국어는 116개라는 점에서 한국어에서 신어를 만드는 조어법 가운데 합성법은 생산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종과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서로 결합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고유어만 구성되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4.4. 혼성어

혼성어는 두 개 단어 또는 어근이 결합하되, 단어 또는 어근의 일부가 단어를 만드는 기존의 단어 형성 방식과 달리 절단과 결합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찬영(2015)에서는 혼성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두 개의 형식 축소를 수반하지 않은 명사가 형성에 참여한다. 둘째, 선행 단어의 앞부분과 후행 단어의 뒷부분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두 단어 가운데 하나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절단은 음절 단위를 경계로 이루어진다. 넷째, 후행 형성어의 음절수를 유지한다. 다섯째, 내심적 구성을 가진다. 여섯째, 축소 이전 형식으로서의 복원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다. 전술한 특징은 독립성의 유무, 단어 형성 이후의 의미, 회복 가능성의 측면에서 합성어와 명확히 구별된다.

노명희(2010)에 따르면 혼성어의 유형은 선·후행 단어의 절단 유무에 따라 ‘AD, ABD, ACD, BD’형으로 나눌 수 있다. ‘AD’, ‘BD’형은 두 단어 모두 절단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ABD’, ‘ACD’형은 두 단어 가운데 하나만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화를 참고하여 두 나라 언어에서 나타나는 혼성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 4.4.1. 한국어 혼성어

2018년 한국어 혼성어 신어는 전체 222개 가운데 70개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혼성어는 한국어에서 조어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 혼성어의 유형은 네 유형 가운데 ‘AD’, ‘ABD’, ‘ACD’형의 세 가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28) ㄱ. AD형: 카캉스, 런예인, 코린이

    ㄴ. ABD형: 가족테이너, 먼제로이드, 잡학피디아, 걸스플레인, 키더런트

    ㄷ. ACD형: 비트페인, 박풀

(28ㄱ)은 AD형 혼성어의 예로, 모두 선행 단어의 뒷부분과 후행 단어의 앞부분이 절단된 상태로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카캉스’는 ‘카페(café)’와 ‘바캉스(vacance)’가 결합한 말로, 휴일에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카페에서 휴양을 즐기는 일을 뜻한다. ‘런예인’은 본래 달리기를 뜻하는 ‘running’과 연예인으로 나눌 수 있는바, 달리기를 즐기는 연예인 또는 유명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코린이’는 가상 화폐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즉 ‘코린이’는

가상 화폐를 달리 부르는 ‘코인(coin)’과 ‘어린이’를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이다.

후행 단어의 앞부분만 절단된 상태로 선행 단어와 결합한 ABD형의 예가 제시된 (28ㄴ) 가운데 ‘가족테이너’는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연예인에 준하는 인지도를 얻는 연예인의 가족을 가리키는데, 엔터테이너(entertainer)의 앞 부분이 절단되어 있다. ‘면제로이드’에서는 근육의 양과 강도를 증강시키는 약물인 ‘스테로이드(steroid)’의 절단형이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는 스포츠 경기에서 병역 면제를 위하여 선수의 경기력이 향상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잡학피디아’는 백과사전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cyclopedia’에서 ‘pedia’만을 따서 사용한 예이다. 이 단어는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리킨다. ‘걸스플레인(girlsplain)’은 주로 남성을 상대로 어떠한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 잘 아는 체하는 여자를 일컫는 말로, ‘맨스플레인(mansplain)’과 반대된다. 이 단어는 ‘girls’와 ‘설명하다’를 뜻하는 영어 동사 ‘explain’으로 나눌 수 있다. ‘키더런트’는 각각 아이와 부모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kid’와 ‘parent’가 결합한 말로, 육아에 미숙한 부모를 일컫는다.

(28ㄷ)은 ACD형 혼성어의 예로,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bitcoin)’과 ‘페인’이 결합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비트코인 투자에 광적으로 빠진 사람을 가리킨다. ‘박풀’의 ‘박’은 ‘박스(box)’의 절단형이며, ‘풀’은 ‘가득하다’ 또는 ‘완전하다’의 의미를 지닌 영어 형용사 ‘full’의 차용형이다. 즉 ‘박풀’은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그 상태가 구입 당시와 같이 보존되어 있으며, 구성품도 모두 포함된 상태를 나타낸다.

#### 4.4.2. 중국어 혼성어

중국어에서는 혼성어가 거의 없는 편인데, 한국어에 비하면 생산성이 거의 없는 조어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8년 《중국언어생활상황보고》에 제시된 신어 가운데 혼성어는 ‘qiou’만 있었다. 이 단어는 AD형 혼성어로, 두 단어의 의미가 하나의 단어 안에 포함된 새로운 표현에 속한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한어 병음으로 표기한다는 특징이 있다. ‘qiou’의 자세한 조어 방법은 다음과 같다.

(29) qiou: 窮(qióng)+丑(chǒu)

(2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qiou’는 가난을 뜻하는 ‘窮’과 용모가 추한 사람을 뜻하는 ‘丑’의 두 말소리가 한 음절로 축약되어 ‘qiǒu’로 형성되었다. 이 단어는 가난하고 얼굴도 못생긴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窮’과 ‘丑’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신어는 한 음절에 둘 이상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의 경제성에 따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 4.4.3. 한·중 혼성어 대조

한국어와 중국어의 혼성어 신어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는 전체 가운데 70개로 가장 생산력이 높은 조어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단 하나의 예만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혼성어는 중국어에서 조어력을 거의 행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예인 ‘qiou’는 ‘窮(가난함)’과 ‘丑(추함)’의 뜻을 모두 지니고 있으나, 이를 표기할 고유 문자가 없어 한어 병음으로 표기하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중국의 문자 체계적 특성은 중국어에서 혼성어가 큰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4.5. 축약어

축약어는 단어 또는 구가 줄어든 것으로, 원래 쓰이던 말보다 구성이 단순하고 길이가 짧은 하나의 단어로 줄어든 것을 이른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축약어를 많이 사용한다.

축약어의 유형은 어두 음절어, 비어두 음절어, 두문자어로 나눌 수 있는데,

어두 음절어는 각 어절의 어두 음절을 중심으로 줄어든 단어이다. 비어두 음절어는 각 어절의 어두음절뿐 아니라 비어두 위치의 음절까지 포함하여 축약된 것으로, 어두음 절어보다는 다소 불규칙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두 음절어, 비어두 음절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는 각각 어떠한 예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양상을 대조 분석하겠다.

## 4.5.1. 한국어 축약어

2018년에 생성된 한국어 축약어는 36개로, 모두 어두 음절어와 비어두 음절어를 중심으로 생성되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어두 음절어와 비어두 음절어를 중심으로 각 유형에 따른 예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 4.5.1.1. 어두 음절어

한국어에서는 어두 음절어 신어가 26개로, 전체 축약어 가운데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이 유형의 신어는 어절의 수에 따라 2음절형, 3음절형, 4음절형으로 나뉘는데, 3음절형의 수가 가장 많다. 다음은 어두 음절어 신어 가운데 일부를 음절 수에 따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 (30) ㄱ. 2음절: 양맥, 멘젓<sup>37)</sup>, 코노, 멩줍  
 ㄴ. 3음절: 가심비, 갑분싸, 이맛현, 운알못, 탈잘싸<sup>38)</sup>  
 ㄷ. 4음절: 청마용성

(30ㄱ)에서는 2음절 어두 음절어의 예로, ‘양맥’은 ‘양고기에 맥주’가 줄어든 단어이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양고기를 즐겨먹게 되면서 만들어

37) 다른 표현으로 ‘멤(마음)이 찢어지다’가 줄어든 ‘멤젓’이 있는데, 이 단어는 ‘가슴이 아프다’와 동의어로 쓰인다.

38) 다른 표현으로 ‘젓잘싸’가 있다. 이 단어는 ‘젓지만 잘 싸웠다’의 의미로, ‘탈잘싸’와 같다.

진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멘찢’은 ‘멘탈이 찢어지다’로, 기존의 표현 가운데 ‘멘탈 붕괴’가 줄어든 ‘멘붕’과 같은 말이다. 이 단어는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일 때 사용한다. ‘코노’는 ‘코인 노래방’을 이른다. 이 단어는 기존 노래방과는 달리 부를 곡의 수에 해당하는 가격만큼의 동전이나 지폐를 기기 안으로 투입하여 노래를 부르는 곳을 뜻한다. ‘멍줍’은 ‘멍멍이 줍기’로, 보통 유기견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는 일을 뜻한다.

(30ㄴ)의 경우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의 비율’로, ‘가성비’와 대비되는 말이다. 이 단어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돈을 쓰는 소비 행태를 이른다.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짐’의 준말로, 보통 화제에서 벗어나거나 분위기에 맞지 않는 이야기로 대화가 더 지속되지 못할 때 사용한다. ‘이맛현’은 ‘이 맛에 현실합니다’가 줄어든 말이다. ‘현질’은 현찰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하는 일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이맛현’은 현질을 통하여 게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을 때 쓰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를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운알못’은 ‘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탈잘싸’는 ‘탈락했지만 잘 싸웠다’는 뜻이다. ‘탈잘싸’는 스포츠 분야에서 경기에 아쉽게 탈락했지만, 참여한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이 줄어든 것이다.

(30ㄷ)의 ‘청마용성’은 서울의 청량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들 지역은 2019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개발 호재를 겪고 있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네 지역을 간단하게 부르기 위하여 만들어진 말에 해당한다.

또한 ‘양맥, 멍줍, 이맛현, 운알못’ 등은 한 표현으로만 정착되지 않고, ‘○맥’, ‘○줍’, ‘이맛○’, ‘○알못’의 형식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맥’의 경우 ‘치맥(치킨에 맥주)’이 대표적인 표현으로, 맥주와 어울리는 음식이라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줍’ 구성에서는 고양이의 경우 ‘냥줍’, 새는 ‘새줍’ 등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 4.5.1.2. 비어두음절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어두 음절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두 음절뿐 아니라 비어두 위치의 음절까지 포함하여 줄어든 말이라는 점에서 어두 음절어와 차이를 보인다. 비어두 음절어는 전체 가운데 10개로, 전체 축약어에서의 생산성은 어두 음절어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음은 2018년 자료에서 나타난 비어두 음절어의 예이다.

(31) 연포자, 퇴준생, 여행잘알

(31)에서 ‘연포자’는 ‘연애’의 첫 음절과 ‘포기자’의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결합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경제적, 또는 개인적 사정으로 연애를 포기한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퇴준생’ 또한 ‘연포자’와 같은 구성을 취하는 단어로, ‘퇴사 준비생’의 준말이다. 또한 ‘여행잘알’의 경우 ‘○알못’과 반대되는 말로, ‘여행을 잘 아는 사람’이 줄어든 말이다.

(31)에서 제시된 단어 또한 어두 음절어에서 제시한 일부 예와 같이 ‘○포자’, ‘○준생’, ‘○잘알’로 응용할 수 있다. 가령 ‘○포자’는 ‘수포자(수학 포기자)’, ‘취포자(취업 포기자)’ 등으로, ‘○준생’은 ‘취준생(취업 준비생)’, ‘임준생(임용고시 준비생)’, ‘7준생(7급 공무원 준비생)’ 등으로 달리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잘알’의 경우 ‘겜잘알(게임을 잘 아는 사람)’, ‘헬잘알(헬조선을 잘 아는 사람)’ 등으로도 쓸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행잘알’의 경우 첫 어절의 ‘여행’이 그대로 포함되어 비어두 음절어에 속하지만, 첫 어절 부분에 다른 단어가 선택되었을 때에는 단어를 따라 어두 음절어가 될 수 있다.

## 4.5.2. 중국어 축약어

중국어에서는 축약어를 ‘간칭(簡稱)’이라고도 하며, 2018년 신어 자료에서는 총 73개가 발견되었다. 이 항에서 소개할 중국어 축약어 신어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어두 음절어와 비어두 음절어로 나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 4.5.2.1. 어두음절어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단어 문자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으나, 한 문자 당 1음절의 음가를 지닌다. 따라서 중국어 어두음절어 신어 또한 한국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중국어 어두 음절어 신어는 총 18개로, 축약어 신어 가운데에서도 생산력이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 축약어 가운데 어두음절어가 압도적인 비율로 나타난 한국어와는 대조된다. 중국어 어두 음절어 신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32) ㄱ. 2음절: 官宣(guānxuān), 紀法(jìfǎ), 霸座(bàzuò) 등  
 ㄴ. 3음절: 衛健委(wèijiànwěi), 特金會(tèjīnhuì), 小三創(xiǎosānchuàng)  
 ㄷ. 4음절: 互信共治(gòngxìnhùzhì)

(3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또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2음절형에서 4음절형까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음절형 어두 음절어 신어의 예가 제시된 (32ㄱ) 가운데 ‘官宣’은 정부 당국과 같이 권위나 공신력이 있는 기관을 뜻하는 ‘官方’와 발표를 뜻하는 ‘宣布’의 첫 음절을 바탕으로 각각 줄어든 단어이다. ‘官宣’은 본래는 공식 발표를 의미하나, 개인의 행동이나 근황에 권위성과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紀法’은 각각 규율과 법률을 뜻하는 ‘紀律’과 ‘法律’이 결합되어 축약된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규율과 법률’의 의미를 지닌다. ‘霸座’는 자리를 점거하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 본래 ‘霸占座位’라는 단어가 줄어든 것이다.

(32ㄴ)는 모두 3음절 신어의 예가 제시된 것으로, ‘衛健委’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대응되는 중국의 행정기관인 위생건강위원회를 뜻하는 ‘衛生健康委員會’가 줄어든 말이다. ‘特金會’는 미·북 회담을 뜻하는 말로, ‘特’과 ‘金’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성을 음역한 ‘特朗普’,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金正恩)과 회담을 뜻하는 ‘會晤’의 첫 음절을 따서 축약되었다. ‘小三創’는 영세기업,

삼농<sup>39)</sup>에 관한 창업기업, 혁신기업을 한데 이르는 말이다. 여기에서 영세기업은 ‘小微企業’, 삼농창업기업은 ‘三農創業’, 혁신기업은 ‘創新企業’이다.

(32ㄷ)은 4음절형으로, 여기에서는 ‘互信共治’ 단 하나만 제시되어 있다. 이 단어는 ‘서로 믿고 함께 관리하자’라는 말로, ‘互信共治’는 ‘상호(互相)’, ‘신임(信任)’, ‘공동(共同)’, ‘다스리다(治理)’의 네 단어가 결합한 형태의 준말이다.

#### 4.5.2.2. 비어두음절어

중국어 비어두 음절어 신어는 어두 음절어에 비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비어두 음절어 신어의 종류 또한 2음절의 단순한 형식에서 4음절 이상의 단어까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33) ㄱ. 2음절: 規上(guīshàng), 草單(cǎodān), 快警(kuàijǐng)  
 ㄴ. 3음절: 進博會(jìnbóhuì), 聯采辦(liáncǎibàn).  
 ㄷ. 4음절 이상: 規上工業(guīshànggōngyè), 海南自貿試驗區(hǎinánzìmàos  
 hiyànqū)

(33ㄱ)은 2음절형 비어두 음절어 신어의 예로, ‘規上’은 ‘어떠한 규모 이상’을 뜻하는 ‘規模以上’이 줄어든 말이다. ‘草單’은 풀을 심는다는 의미의 ‘種草’와 목록을 뜻하는 ‘清單’이 결합한 ‘種草清單’의 준말이다. 이 단어는 주로 미용 제품을 중심으로 어떠한 상품의 특징을 소개함으로써 타인에게 구매의욕을 돋우는 행위를 뜻한다. ‘快警’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뜻하며, ‘快速’의 첫 음절과 ‘出警’의 마지막 음절을 바탕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33ㄴ)에서는 모두 3음절형의 예가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進博會’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를 뜻하는 ‘中國國際進口博覽會’로 ‘수입’을 뜻하는 ‘進口’와 ‘박람회’와 대응되는 ‘博覽會’가 줄어든 말이다. ‘聯采辦’은 국가 조직 의약품 집중 구매 사무실을 의미하는 본말 ‘國家組織藥品集中採購試點聯合採購辦

39) 농민, 농촌, 농업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公室’을 지닌 단어이다. 여기에서는 ‘聯合’, ‘採購’, ‘辦公室’의 음절을 따라 축약되었다.

(33ㄷ)은 4음절 이상을 지닌 형태의 예로, ‘規上工業’은 ‘규모 이상의 공업 기업’의 뜻을 지닌 ‘規模以上工業企業’을 축약한 말이다.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를 뜻하는 ‘海南自貿試驗區’는 ‘中國(海南)自由貿易試驗區’라는 본말이 줄어든 것이다.

### 4.5.3. 한·중 축약어 대조

이상의 내용을 통해 축약에 의한 신어는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어두 음절어와 비어두 음절어로 나뉘어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어두 음절어는 두 언어 모두 어절의 수에 따라 2음절형, 3음절형, 4음절형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서로 표기 체계가 다르지만, 축약에 따라 나타나는 신어의 양상은 결과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한국어는 축약 가운데 어두 음절을 중심으로 한 축약의 비중이 더 높은 반면, 중국어는 비어두 음절 기반의 축약법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비어두 음절의 경우 한국어는 기본 3음절부터 시작하지만, 중국어는 2음절에서 4음절 이상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비교적 다양하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어두 음절어와 비어두 음절어 모두 ‘○맥’, ‘○알못’ 등과 같이 핵심 대상을 나타내는 위치에 다른 단어를 삽입하여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중국어에서는 그러한 양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신어를 어종과 품사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조어법을 바탕으로 대조 분석함으로써 두 언어 간 신어의 조어 양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선행 연구 검토와 함께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을 밝혔다. 선행 연구는 크게 한국어 신어 연구와 중국어 신어 연구 및 한·중 신어 조어법 대조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어의 조어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혼성어, 축약어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어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신어의 개념 및 생성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신어의 개념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정의를 결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 사회 내에서 새로운 지시 대상이 나타났을 때, 이를 지칭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말을 뜻한다.”라고 제시하였다. 또한, 신어와 유행어 개념을 구분할 때 신어의 핵심어는 ‘새롭다’로, 유행어의 핵심어는 ‘유행하다’라고 제시하였다. 신어의 생성 요인은 사회적, 언어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제3장에서는 두 언어의 신어를 어종과 품사에 따라 구분하였다. 한국어 신어는 어종에 따라 크게 단일어원과 복합어원으로 나누었다. 한국어 단일어원은 고유어와 외래어로 생성되었고 중국어 단일어원도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뉘었다. 그러나 한국어 단일어원 신어에서 외래어는 영어 외에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을 차용하였는데 중국어 단일어원 신어의 경우는 영어만을 차용하였다. 한국어 복합어는 고유어와 외래어 및 한자어가 결합된 형식이 있었는데 중국어 복합어원은 고유어와 외래어가 결합된 것만 존재한다. 중국어 복합어원보다 한국어 복합어원의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품사별 신어는 한국어 신어와 중국어 신어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고 모두 면사 중심으로 신어가 형성되었다.

<표 14> 조어법에 따른 신어의 대조

한국어				중국어			
신어 유형		단어 수	비율(%)	신어 유형		단어 수	비율(%)
단일어		35	15.8	단일어		5	1.6
파생어	접두 파생어	0	0	파생어	접두 파생어	11	3.4
	접미 파생어	45	20.3		접미 파생어	22	6.9
합성어		36	16.2	합성어		208	65
혼성어		70	31.5	혼성어		1	0.3
축약어	어두 음절어	10	4.5	축약어	어두 음절어	18	5.6
	비어두 음절어	26	11.7		비어두 음절어	55	17.5
계		222	100	계		320	100

<표 14>를 살펴보면 2018년 한국어 신어는 총 222개, 중국어 신어는 총 320개이다. 단일어를 보면 한국어 단일어는 35개로 15.8%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어 단일어는 5개로 1.6%를 차지하였다. 한국어 단일어가 중국어 단일어보다 조어력이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어를 보면 한국어 파생어는 접두사가 없고 접미사 45개로 20.3%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어 파생어는 접두 파생어가 11개로 3.4%를 차지하였고, 접미 파생어가 22개로 6.9%를 차지하였다. 한국어 파생어와 중국어 파생어의 수량을 보면 접두사보다 접미사 파생 신어 조어력이 활발한 편이다. 특히 2018년 한국어 접미 파생 신어가 그러하다.

합성어를 보면 한국어 합성어와 중국어 합성어가 큰 차이가 있다. 한국어 합성어는 36개로 16.2%를 차지하였다. 중국어 합성어는 208개로 나타났고 전

체 신어의 65%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다.

혼성어를 보면 한국어 혼성어는 70개로 31.5%를 차지하였다. 중국어 혼성어는 1개밖에 되지 않았다. 한국어 신어 가운데는 혼성어의 조어력이 가장 활발한 반면, 중국어의 경우는 매우 드물다.

축약어를 보면 한국어 축약어는 어두 음절어가 10개로 4.5%를 차지하며, 비어두 음절어는 26개로 11.7%를 차지하였다. 중국어 축약어는 어두 음절어가 18개로 5.6%를 차지하여 비어두 음절어는 55개로 17.5%를 차지하였다. 한국어 축약어와 중국어 축약어가 모두 조어력이 좋은 편인데 한국어 축약어보다 중국어 축약어의 조어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으며 상호 간 영향력 또한 적지 않다. 이러한 면은 신어에서도 적지 않으리라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어를 대상으로 하는 대조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하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한계상 2018년 신어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를 신어 전반으로 확대해석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추후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후일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강신향(1991), 《현대 국어 어휘 사용의 양상》, 태학사.
- 교훤(1999), <韓·中新語造語法比較小考>, 《語文研究》 제27권1호, 한국어문교  
육연구회, pp.67 ~ 79.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미영(2010), <신조어의 생성과 보급에 대한 사회·심리 언어학적 분석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희영(1999), <현대 국어의 형성 연구:1990년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남기심(1983), <새말[新語]의 생성과 사멸>, 《한국어문의 체문제》, pp.192 ~ 223.
- 료해도(2017), <한·중 신어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국민대학교 대학원)
- 리양(2012), <한·중 신조어의 대비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원).
- 문금현(1999), <현대국어 신어(新語)의 유형 분류 및 생성 원리>, 《국어학》  
제33권, 국어학회, pp.295 ~ 325.
- 백동선(2006), <신어, 유행어를 통한 일본의 시대상 분석>, 《일본어문학연  
구》 제59호, 한국일본어문학회, pp.235 ~ 252.
- 서사명(2009), <한중 신어의 대비 연구>, 석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대학원).
- 신기상(1999), <우리말의 욕설 연구>, 《국어교육》 제79호, 한국국어교육연구  
회, pp.15 ~ 46.
- 여익현(2017), <한·중 신어의 대조 연구>, 박사학위논문(가천대학교 대학원).
- 오혜선(2013), <현대 국어 신어 유형 분류>,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대학  
원).
- 이가익(2016), <한중 신어에 대한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이방방(2010), <현대 한국어 신조어 연구>, 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 대학  
원).
- 이병일, 왕유(2018), <현대 한국어의 조어법과 특징>, 《중한언어문화연구》,  
제15권,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pp.74 ~ 104.



- 이비(2019), <한·중 신어의 대비연구- 신어의 생성방식을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정해(2014), <중국의 사회변화와 신조어 생성관계 연구 >, 석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2015), <한국어 신어 형성 유형 연구>,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찬영(2019), <현대 한국어 혼성어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희승(1933), <新語濫造問題>, 《朝鮮語文》 제6권, 朝鮮語學會, pp.16 ~ 24.
- 임지룡(1997), 《새 말의 창조》, 탑출판사.
- 임지룡(2002), <20세기 이후 국어 어휘의 사용실태와 조어론적 특성>,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제1호, 국립국어연구원, pp.273 ~ 296.
- 조진(2016), <한·중 신어의 형성 양상 대비연구: -2014년 신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대학원).
- 진혜욱(2017), <한·중 신어 형성 양상 대비 연구:2014년 신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건국대학교 대학원).
- 呂叔湘(1984), <大家來關心新詞新義>, 《辭書研究》第1期, 上海辭書學會, pp. 8~14.
- 馬怡璇(2018), <《現代漢語詞典》(第7版)新增詞語造詞法研究>, 河北師範學碩士學位論.
- 蘇琳(2018), <新時期漢語新詞語构造机制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顏 艷(2008), <韓中新語의 形成樣相比較研究>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吳婭(2019), <《現代漢語詞典》(第7版)新增詞語研究>, 雲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游玉祥(2012), <新詞語的特点分析及其認知解釋>, 上海外國語大學博士學位論文.
- 丁 穎(2008), <국어 유행어에 대한 연구 >, 석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 대학원).

畢延香(2016), <中韓新詞新語构詞法對比研究>, 烟台大學碩士學位論文.

## 참고사전: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이정민, 배영남(1987), 《언어학사전》, 백영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한글학회(1995), 《국어학사전》, 편집부.  
李行健(1993), 《新詞新語詞典》, 語文出版社.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2003), 《新華新詞語詞典》, 商務印書館.  
王均熙(2006), 《新世紀漢語新詞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05), 《現代漢語詞典》, 商務印書館.  
戚雨村(1993), 《語言學百科詞典》, 上海辭書出版社.  
亢世勇(2019), 《新詞語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現代漢語大詞典編委會(2010), 《現代漢語大詞典》, 上海辭書出版社.  
現代漢語新詞語詞典編委會編(2005), 《現代漢語新詞語詞典》, 商務印書館.